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재단법인 노회찬재단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이탄희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은주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순서

13:4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_ 조돈문 이사장, 이은주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강연① 김 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 수사학에 비춰 본 노회찬의 말과 글”

14:10-15:10 강연②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버(Giver)의 전언(傳言)-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의 수사(修辭)”

강연③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현대 수사학으로 소환하는 노회찬의 말하기”

15:10-15:30 휴식

우리시대 정치인의 말과 글
사회 : 강상구 (저자, <노회찬의 말하기> 외)

15:30-16:50 패널 : MC장원(개그맨) 김가영(정의당) 김현(서울대)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안성재(인천대)
이대근(우석대) 하병학(가톨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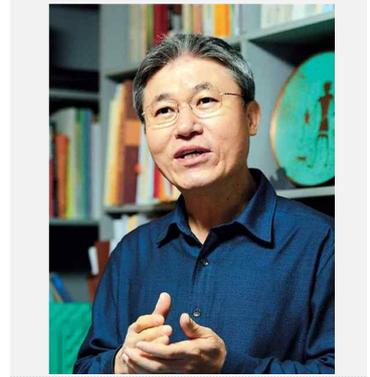
16:50-17:00 폐회 및 기념촬영

목 차

인 사 말①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5
인 사 말②	이은주 국회의원	6
인 사 말③	이탄희 국회의원	7
주제강연①	김 현 (서울대학교) “고전 수사학에 비춰 본 노회찬의 말과 글”	9
주제강연②	안성재 (인천대학교) “기버(Giver)의 전언(傳言):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 의 수사(修辭)”	39
주제강연③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현대 수사학으로 소환하는 노회찬의 말하기”	65
패널토론문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87
패널토론문②	이대근 (우석대학교)	93
패널토론문③	김가영 (정의당)	101
패널토론문④	MC장원 (개그맨)	107

인사말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정치가 어지러울 때면 노회찬 의원이 생각나게 되는가봅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짜증만 나게 할 때면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는가봅니다. 요즈음이 딱 그러합니다.

정치인의 막말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훼손하고, 국민 정서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사회의 전망을 열어주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을 지키되 정곡을 찌르는 노회찬의 말과 글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노회찬의 언어가 희망을 주고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진정성 때문이었고, 그의 한결같았던 삶의 무게감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의원 4주기를 맞아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을 소환하여,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존재의 집을 지어주고, 정치가 다시 희망을 줄 수 있게 독려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한국수사학회 김헌 교수님, 안성재 교수님, 하병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 정치인의 말과 글” 패널 토론에 함께하시는 강상구님, 김가영님, 박상훈님, 이대근님, MC장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찬재단과 함께 노회찬 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시는 이은주 의원님과 이탄희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국민에게 걱정거리만 안겨주는 정치판에서 품격 있고 무게감 있는 언어로 정치가 희망을 주는 날들을 열어주셔서 달라는 부탁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은주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노회찬 의원 서거 4주기 추모토론회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신 노회찬재단을 비롯해 노회찬 의원의 말과 글을 각각 동양·서양·현대 수사학 관점에서 분석해 주시는 김현, 안성재, 하병학 연구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2부 행사인 ‘우리시대 정치인의 말과 글’ 토크쇼에서는 패널 여러분들의 다양한 통찰이 담긴 이야기가 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말이 중요합니다. 특히 말을 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가란, 무기 대신 말로써 대중을 이끌고 사회에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 노회찬 의원님이십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서는 적절한 비유와 쉬운 정치 언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셨습니다. 견해와 입장이 다른 정치인에게는 논리적인 주장과 정제된 비판으로 정치적 품위를 지키셨습니다. 여기에 재치와 유머가 더해지니 그와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의원님의 입이 열릴 때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말과 글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혐오를 선동하고, 대중을 이분법으로 갈라치는 이 시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좋은 말은 좋은 정치를 낳고 사나운 말은 사나운 정치를 낳는다’ 는데, 노회찬 의원님의 어록을 통해 정치 언어의 순기능을 다시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를 통해 의회에서 ‘말’ 로서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말’ 로서 협력과 연대의 토대를 갖춰 나아가 정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입니다.

먼저 조돈문 이사장님을 비롯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노회찬재단 임직원 여러분과 이은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1주기를 기리며 제정한 ‘노회찬 정의상’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의원실 한 칸에 놓인 상패를 보며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꿈꾸셨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후배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 실천의 삶을 배우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노회찬 의원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상황에 서민들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 분이라면 국민들의 이러한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셨을지, 의원님의 따뜻한 신념과 용기 있는 발자취를 떠올려보곤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토론회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말과 글은 언제나 힘든 시기에 국민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 언어는 우리의 곁에 남을 것입니다. 혐오와 갈등이 아닌, 공감과 배려의 문장을 말하는 정치가 자리 잡는 일에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제 강연

고전 수사학에 비취 본 노회찬의 말과 글

김 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제강연(1) 고전 수사학에 비춰 본 노회찬의 말과 글

김 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2007년 3월 11일, 노회찬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정당의 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성이고 있을 때, 그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이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홀연히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피운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민주노동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중략]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진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17대 대선 승리를 통해 새 세상을 열고자 다시 광야에 나서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진보 정당 집권의 꿈은 단지 민주노동당 8만 당원들만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민주노동당의 꿈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수백만 민중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¹⁾

이 연설문에는 정치인 노회찬이 궁극적으로 꿈꾼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 다소 낭만적이고 원칙론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정치적 지향을 보여준다. 오늘의 발표는 그가 머리로 꿈꾸고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어떻게 그의 말과 글에 표현되었는지를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하고 발전하여 체계화된 ‘고전 수사학’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며, 그의 정치적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회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청중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리라는 예감을 먼저 고백한다. 시간과 발표자의 능력의 한계로 노회찬의 말과 글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한 정치가의 말과 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서양에서 가장 유효한 기준으로 꼽히는 그리스 고전기의 수사학의 역사와 체계를

1) 노회찬, 노회찬재단(준) 기획 (2019) 『노회찬, 함께 꾸는 꿈』, 후마니스트, 50-51쪽.

그러내는 데에 발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노회찬의 말과 글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에 만족하고자 한다. 이에 맞추어 노회의 말과 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는 이후 과제가 될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할 줄 아는 존재이다.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뭔가 중요한 일을 실천하지만, 말을 통해 이루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많다. 힘이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룬다. 한 사람이 어떤 조직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그의 말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된다.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그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그의 권력은 허세에 불과하다. 반면 지위가 낮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한 말이 그 조직을 움직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 조직 내의 실세라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표현된 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신비롭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신들의 계보를 노래한 시인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뮤즈 여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칼리오페가 곁에서 그를 돕기 때문이다. 그녀가 왕의 혀에 달콤한 이슬을 부어주면 그의 입에서는 꿀과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위기와 불안 속에서 달콤한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

칼리오페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Kalli) 목소리(Ope)’이지만, 그녀의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미사여구나 교언영색이 아니다. 그녀의 선물은 정의와 법도를 분별하여 중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이며 그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능력이다. 돌과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 거친 논쟁의 날선 가시만이 창궐하는 회의장에 등장한 그는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의견을 정중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운 언어에 담아 내놓는다.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다가 밝은 빛을 만난 듯 감동하고 환호하며 그를 신처럼 맞이한다.²⁾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회찬은 그는 무사여신 칼리오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

2) 헤시오도스, 『신통기』 81-93행.

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처럼 달콤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했다. 청중을 감동시키며, 울고 웃게 만들었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렷이 보게 했으며, 어디로 가야할지 명확하게 제시했다. 풍요로운 경제 발전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간파하며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말은 우리의 시선에 끼어 있던 안개를 걷어내는 것만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이 뽑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경제가 문제입니까? 2006년 경제성장률이 실현 가능한 최대 성장치인 5퍼센트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도 기록적인 3,000억불에 도달했는데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분배 문제입니다. 왜곡된 분배 구조의 문제입니다.³⁾

고대 그리스의 지성인들은 무사 여신의 선물과도 같은 신비로운 말의 능력을 학문적으로 검토하여 체계화시켜 ‘수사학’을 세웠다. 이를 ‘레토리케’(rhētorikē)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어 ‘레토릭’이 비롯되었다. ‘연설가’를 가리키는 그리스 말 ‘레토르’(rhētōr)와 ‘기술, 능력, 솜씨’를 뜻하는 그리스어 어미 ‘-이케’(-ikē)가 결합해서 ‘연설가의 기술’을 가리키는 말로 BC 5세기 전후에 그리스 고전기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피스트들에 의해 교육의 주요 콘텐츠가 되었고, 이소크라테스에 의해 품격 있는 말의 능력으로 다듬어졌으며,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철학적으로 정립된 수사학을 ‘고전 수사학’이라 부른다.

2. ‘레토리케’로서의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수사학’으로 번역된 ‘레토리케’는 BC 386년쯤에 플라톤이 쓴 『고르기아스』에서 처음 발견된다. 플라톤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흔히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편에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를 만나서 ‘수사학’, 그러니까 ‘레토리케’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고르기아스가 레토리케를 가르치면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략 BC 427년경으로 보이는데, 고르기아스는 56세, 소크라테스는 42세, 중년의 무르익은 지성인의 만남이었다. 이 만남

3) 노회찬 (2019) 앞의 책 43쪽.

과 대화의 주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레토리케’란 말은 그 즈음에 처음 만들어져 막 쓰이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그 이전에도 레토리케라는 말은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레토리케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레토리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는 이 책에서 처음 발견된다. 특히 수사학이 무엇이냐에 관한 개념 정의가 흥미진진하게 시도된다.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 해에 고르기아스는 고향인 시켈리아 섬(지금의 시실리)의 레온티노이를 떠나 아테네로 처음 왔다.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스파르타와 그리스 주도권을 놓고 대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던 혼란의 와중이었다. 그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년)이라고 한다. 당시 레온티노이는 아테네와 친하게 지내던 도시국가였는데, 시켈리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시라쿠사가 레온티노이를 치려고 했다. 이 침략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레온티노이의 시민들은 고르기아스를 아테네로 파견했던 것인데, 아테네로부터 군사적, 외교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고르기아스는 일종의 외교관이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고르기아스는 수사학을 가르쳐 돈이나 벌려는 저급하고 고약한 소피스트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무거운 책무를 지고 아테네를 찾아온 고르기아스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했다. 도대체 고르기아스가 어떤 재주가 있기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 하는지,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궁금하면 절대 못 참는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나요?” 그러자 고르기아스는 아주 짧게 대답한다. “레토리케지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연설가의 기술’을 뜻한다. 그러면 고르기아스는 연설가인가? 고르기아스는 즉각 대답한다. “좋은 연설가요.” 그가 말했듯이 ‘좋은 연설가’라면, 고르기아스는 당연히 ‘연설가 기술’ 레토리케를 남에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번에도 고르기아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수사학(레토리케)은 말로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법정에서는 재판관들을, 평의회장에서는 평의회 의원들을, 민회에서는 민회 의원들을, 그리고 도시 집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모든 집회에서 말로써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이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도 넘는 그 옛날에 이런 정교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명확한

정의가 내려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때가 우리 역사에서는 별다른 기록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고조선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레토리케가 탄생해서 활짝 꽃피어난 그리스의 아테네는 모든 시민들이 도시국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하고 소통하며 결정하던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돈이나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논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공동체를 움직였다는 뜻이다.

사실 엄밀한 논리와 객관적인 탐구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이나 과학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공동체가 직면한 대내외 난제를 타결해 나가며 공동선을 높이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실리적 판단과 관련이 있어서, 과학이나 엄밀한 철학과 같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학은 바로 이런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 까닭에 연설가의 기술이요 설득의 능력으로서의 수사학, 즉 레토리케는 지금 우리가 사는 다양성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삶의 기술이며 정치의 기술일 것이다.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올바른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일이 수사학의 가장 건전하고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회찬의 말과 글이 수사학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의 정치적 관심 자체가 수사학적이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역대 정권도 소통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중에 인심을 얻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다른 나라 국민의 인심을 얻겠다는 건지, 도대체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몹시 궁금합니다.”⁴⁾ 그의 정치와 말이 국민의 마음을 향하고 있음이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향한 신랄한 비판으로 표현된 것이다. “MB, 드디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군요. 경제 살리겠다고 약속하고선 본인 경제만 챙긴 대통령 (중략) 늦었지만 청소하기 좋은 날이 왔습니다. 이 기회에 말끔히,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⁵⁾

4) 강상구 (2019) 『언제나, 노회찬 어록 -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그의 말들』, 루아크, 113쪽.

5) 위의 책 111쪽.

3. 수사학의 전성기를 연 소피스트

그리스 도시국가 여러 곳에서 민주정이 세워지면서, 시민들의 정치적인 참여가 확대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사학의 인기는 점점 높아갔다. 그에 따라 수사학은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모든 배움의 정점으로 통했다.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려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하는데, 수사학은 가장 유력한 비책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은 교육과 사상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소피스트가 그 흐름을 주도했다. 우리는 흔히 ‘궤변론자’라고 번역하곤 하지만, 그 원래 뜻은 ‘지혜로운 것들을 아는 사람’, ‘지혜의 전문가’라는 뜻에 가깝다.

수사학의 위력은 정치연설가들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그들은 민주정을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연설로 청중을 사로잡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아테네의 정치가요, 군인이었던 페리클레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며 전쟁을 함께 수행했던 장군이자 역사가인 투퀴디데스는 그에 관해 이런 글을 남겼다.

“페리클레스는 명망과 판단력을 겸비한 실력자이자 청렴결백(ἀδωρότατος)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대중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대중이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인도했다. 그는 또 부적절한 수단으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아첨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그는 높은 명망을 누리고 있어 대중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한 말을 반박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는 그들이 지나칠 만큼 자신들을 과신하는 것을 볼 때면 충격적인 발언으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하면, 그들이 공연히 낙담하는 것을 볼 때면 그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곤 했다.”⁶⁾

그는 당대의 지식인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식견과 품격, 수사학을 익혀나갔다. 그에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로는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꼽힌다. 그에 관해 후대의 철학자 플라투르코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낙사고라스의 숭고한 철학과 고상한 사색에 깊이 빠졌다. 그럼으로써 그의 정신은 고결해지고 말은 고상해져, 그는 비천한 사람들의 막말이나 저잣거리의 천박한 농담에서 벗어났다. 또한 그는 웃을 때 조차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않았다. 그의 조용한 행동과 단정한 옷 매무새는 누구도 그를 가까이 대할 수 없게 만들었고, 단호하면서도 온화하게 다듬어진 목소리를 비롯한 여러 특색은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⁷⁾

6) 투퀴디데스, 천병희 옮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2권 63.8-9.

탁월한 말솜씨로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해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다. 그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묘책을 가지고 있다고 조리 있게 주장했다. 그가 던진 메시지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아테네인들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적할 수 있게 한 연설의 한 부분을 보면, 그의 수사능력의 탁월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사치함이 없고, 지혜를 사랑하되 유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를 행동의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로 자랑할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난함을 수치스러워 하지 않지만, 가난을 면하고자 일하지 않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⁸⁾

그러나 그게 문제였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대단했지만, 아테네는 그의 말솜씨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말은 맞지만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다. 그는 자기 말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째 되는 해에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스파르타가 침략한 순간, 그의 전략에 따라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아테네 도성 안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때문에 아테네에 급속도로 전염병이 퍼졌던 것이다. 그 후 아테네 시민들은 페리클레스 없이 29년을 더 전쟁을 치러야 했다. 국력은 고갈되었으며 결국 참패하고 말았다. 페리클레스가 그렇게 연설을 잘하지 않았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3.1. 외교활동으로 빛난 고르기아스

진정성을 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해도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말이 좋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대중연설가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진실을 호도하고 그럴듯한 거짓으로 청중을 선동하기라도 한다면, 사회는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은 그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며 혼란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정의 아테네는 그저 각자의 의견만이 여기저기에서 들쭉날쭉 거리는 곳처럼 보였고, 거기에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 같았다. 설령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말로 옮길 수 있을까? 말

7)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페리클레스』 편 5.1.2-5.2.1.

8)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40.1.1-2.40.2.1.

로 옮긴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피스트였던 고르기아스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

고르기아스는 시칠리아 섬의 레온티노이 출신으로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제자였다. 그러나 그는 세상 만물을 이루는 근본적인 실체를 찾는 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버렸다. 오히려 그런 문제에 몰두하는 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 대신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나대는 여느 소피스트와는 격이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자기 도시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외교관으로 명성이 높았다. 어려운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말로 풀어내는 솜씨가 탁월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협상과 중재, 외교적인 말솜씨를 배우려고 했다.

그는 그리스 여러 도시의 공개 석상에 초대받아 연설을 했다. 특히 올림피아나 델포이에서 범 그리스적 운동경기가 열릴 때, 주요 연사로 초청되었다. 필로스트라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고르기아스는 올림피아 경기에서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이여, 우리끼리 왜 싸우는가? 이런 싸움은 저 바다 건너 페르시아인들에게 침략의 기회를 줄 뿐이다. 우리 이제 갈등과 싸움을 멈추고 하나가 되자. 그 힘으로 페르시아에 대항하자.’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그 돌파구를 용기 있게 제시했고, 수많은 관중들은 그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 연설은 이소크라테스의 ‘범 그리스주의’의 싹이 되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의 청사진이 되었다.

그의 연설에 감탄한 여러 도시의 지도자들은 앞 다투어 그를 초청했다. 그가 어느 도시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면 그 도시는 물론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에게 한 수 배우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런 활동 때문에 사람들은 고르기아스가 막대한 재산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가 자기 자신의 조각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주된 활동은 교육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도시와 그리스를 위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이었다.

3.2. 프로타고라스의 정치학과 수사학

또 다른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했다. 진리라

는 것은 그저 우리 인간들끼리 진리라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아니, 그렇게만 되어도 좋은데, 사실 인간들 사이에도 완전한 합의가 있을 수가 없으니, 각자 자기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것에 관하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판단은 철저히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달린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척도는 결국 개인”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더 나아가 한 사람에서도 가치 판단과 생각은 시시각각 흔들리지 않는가? 극단적으로 간다면,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한 개인이 그때 거기에서 갖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프로타고라스는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철저했다. 그의 말에 아테네와 그리스는 술렁였고, 모두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였다.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에는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나에게 배우는 사람은 매일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318a)라고 말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에 관한 지혜를 가르칩니까?” 프로타고라스는 대답했다. “잘 숙고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가장 잘 꾸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나랏일을 경영하면서 가장 능력 있게 행하고 말할 것인지 말이죠.” 한 마디로 말하자면 도시국가(polis)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훌륭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인데, 바로 ‘정치학’(politikē)이다. 그는 세속적인 부대낌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고고한 철학자가 아니라, 격동의 삶의 현장 속 다양한 의견들이 격돌하는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설득의 힘으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좋은 시민으로 사는 지혜를 얻고자 했다. 바야흐로 소피스트의 전성기였다.

물론 이들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사람들도 있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소위 철학자들이었다. 그리고 소피스트임을 자부하면서도 잘못된 소피스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4. 정치적 담론의 모범, 이소크라테스

4.1. 소피스트를 넘어서려는 노력

기원전 392년 경,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반박』을 발표했다. 프로타고라스나 고

르기아스처럼 세인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던 소피스트들도 있지만, ‘짜퉁’ 소피스트가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분야, 어떤 것에서든 짜퉁이 많아지다 보면, 진짜는 잊혀지고 짜퉁이 진짜로 행세하고 진짜로 통하곤 한다. 그들이 설쳐대는 꼴을 이소크라테스는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원래 그리스 말 ‘소피스테스’(sophistēs)는 ‘지혜로운(sophi-) 것을 잘 아는 사람(tēs)’이라는 뜻이었고, ‘전문 지식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그놈의 짜퉁들 때문에 소피스트는 퀘변론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처음 소피스트가 등장했을 때, 그들은 법정이나 의회, 개선식이나 전몰용사추모식과 같은 공적인 담론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연설가들을 육성하는 수사학 교육자로 이름을 높였고,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 전역에 교육의 새 바람을 일으킨 교사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된 종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며 전통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이소크라테스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짜퉁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과대 포장하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오라.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 힘들게 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었다. 심지어 신들조차도 못하는 바, 미래의 일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훌륭한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덕(aretē)도 손쉽게 가르쳐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뽕뽕 치고 다녔다. 진리를 추구하는 체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거짓말을 쏟아낸다고 이소크라테스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모든 행태가 학생들을 끌어 모아 돈을 벌겠다는 천박한 마음에서 나온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본 이소크라테스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소피스트를 반박하는 이소크라테스의 본심에는 진짜 좋은 교육을 해보고 싶은 진지한 의지가 깃들여 있었다. 그는 말을 교육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소피스트 반박』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출사표였다. 이것 역시 다른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할 것이라는 일종의 광고였으니, 일견 그도 학생을 모아보겠다는 호객의 전단지를 뿌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의혹이 무색하게, 그의 학교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금세 유명해졌고 그의 교육은 아테네와 그리스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능력과 진정성을 알아보고 많은 학생들이 아테네 안팎에서 그의 학교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수사학’이 아닌 ‘철학’(philosophia)을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평생 지켰다. 『소피스트 반박』을 발표하고 학교를 세운 뒤,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쳐오던 그는 기원전 354년 82세의 나이에 발표한 『안티도시스』에서 자신은 평생을 한결같은 자세로 줄곧 철학을 가르쳐 왔노라고 자부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스스로 철학자라 칭한 이소크라테스의 이름이 ‘서양철학사’라는 제목을 단 대부분의 책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20세기 말까지는 이소크라테스를 철학자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플라톤 때문이다.

4.2. 플라톤과의 대립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던 때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웠다. 이소크라테스보다 7년이 늦은 기원전 387년께였다. 교육계의 후발 주자였던 플라톤은 당대 교육계를 주름잡던 소피스트들은 물론, 새롭게 주목받고 대중의 신뢰를 얻던 이소크라테스를 넘어서야 했다. 그는 이소크라테스를 에둘러 비판했다. 새로운 교육을 표방하고는 있고 여느 ‘천박한’ 소피스트와는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소피스트의 하나며 소피스트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를 당대 최대 경쟁자로 여긴 플라톤은 그를 겨냥하며 자신의 철학을 버려나갔다. 실제로 두 사람의 ‘철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 말로 철학, 즉 필로소피아는 ‘지혜(sophia)를 사랑하는(philo-) 것’, 그래서 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며 탐구하는 일이다.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추구하고 사랑해야 할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나?’라는 문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대립하였다. 이소크라테스에게 지혜는 실용적인 의미가 컸다. 그는 도시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지혜의 요체라고 보았다. 예컨대, 그는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에 서로 조율하고 화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만약 타협에 실패하여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사적인 분쟁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

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고, 정의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 도시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더 높은 수준의 지혜다.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실천적인 지혜, 공동체적인 현명함을 ‘프로네시스(phronēsis)’라고 불렀다. 그의 교육은 프로네시스를 갖춘 ‘현명한 사람(pronimos)’을 키우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문제적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만한 시의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런 기여로 인해 공동체에 참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이념에 반기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개념은 ‘의견(doxa)’이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시의적절한 의견이란 특정 상황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한낱 의견일 뿐, 진실도 진리도 참된 지식도 아니다. 정말 중요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진실과 그것을 아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epistēmē)’이다.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지만, 이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선 곳에 영원불변하는 본질의 세계, 참된 존재의 세계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데아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반박과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한갓 현상에 불과한, 하릴없는 거짓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참된 진실의 세계는 이 감각적인 세상 너머 다른 곳에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오히려 허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초월적인 세계야말로 영원불변한 진상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이야말로 가장 생생하고 참되며 중요한 곳이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체며, 이를 위해 현명한 의견을 구상하고 말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믿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곧 철학자이고,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sophos)’, ‘현명한 사람(phronimos)’이며 ‘수사적 인간(rhētorikos)’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양철학사는 플라톤의 노선을 따라 계승되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Winer takes all)’ 역사의 생태계에서 플라톤은 철학의 최고봉에 우뚝 선 반면,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소크라테스는 아예 철학의 영

역에서 배제되었고 철학자가 아닌 수사학자로 불리게 되었다.

4.3. 그리스 대통합을 외친 이소크라테스

그러나 ‘그때 거기’ 간다면 철학과 교육의 주류는 이소크라테스였다. 뛰어난 인재들이 그의 학교로 모였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리스의 위기를 이겨낼 해안을 구하고 있었다. 기원전 380년 제100회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을 때, 그는 그리스 전체를 대표하는 연설자로 초빙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올림피아 제전은 지금 세계인의 축제지만, 원래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범 그리스적 축제(Panhellenic festival)’였다. 제우스를 주신으로 하는 종교적 제의의 형식과 의미를 취한 스포츠 제전이었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사들이 곁들여졌고 그리스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연사로 초대된 것이다. 그는 최고의 연설가를 지목하여 자신이 작성한 연설문 『파네귀리코스(Panēgurikos)』를 발표하게 하였다. 거기엔 그리스 역사를 획기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정치적 이념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그 즈음, 그리스는 정치·외교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27년 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양분하여 거대한 내전(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404년)을 치렀고, 그 후유증이 심각했다. 패한 아테네는 부흥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버거웠고, 승리한 스파르타는 그리스 전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찢찢매고 있었고, 마침내 기원전 371년 레옥트라 전투에서 테베에서 패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패권을 잃고 말았다. 큰 전쟁은 끝났지만, 그리스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치열했다. 이를 쳐다보던 동방의 페르시아는 다시 군침을 흘렸다. 이곳저곳을 교묘하게 지원하면서 그리스의 내분과 갈등을 조장하던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들은 기원전 490, 480년 두 차례 그리스를 침략했으나 참담하게 실패한 후 그리스를 노리며 와신상담하던 터였다.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한 이소크라테스는 돌파구가 될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스인들이여, 왜 우리끼리 불신과 반목에 휩싸여 서로 싸우는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힘으로 모으자.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페르시아를 치자.’ 올림피아에 모인 그리스인들은 그의 연설에 열광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리둥절 망설이며 주저했고 의심했다. 이소크라테스의 의견이야 백번 옳지만,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거대한

동방의 제국 페르시아로 넘어가 정복 전쟁을 벌인다는 말인가?

그리스인들의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 이소크라테스는 전설적인 과거를 상기시켰다. ‘우리의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가. 그리스 전역의 전사들이 모여 함선을 타고 트로이아로 건너가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던가. 선조들을 기억하라. 그 선조들의 후손인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의 주장은 그때만의 단발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중요한 시기마다 그는 그리스 청중 앞에 나서서 이른 바 ‘범그리스주의’(Panhellenism)를 외쳤다. ‘모든(pan) 그리스(hellen-)인들이 하나로 뭉치자는 이념(-ism)’이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

4.4. 이소크라테스의 꿈이 이루어지다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인 힘은 군사력이나 돈이 아니라, 말과 글에서 나왔다. 그는 그리스 주요 도시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들을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이념을 실현해줄 사람을 물색했다.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서한을 공개하며 대중의 공감도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기원전 368년 그는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뉴시오스 1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디오뉴시오스 1세는 플라톤도 정치적 희망을 걸고 찾아갔던 지도자였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를 ‘철인군주’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노예로 팔려 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기까지 했다. 이소크라테스는 디오뉴시오스 1세에게 탁월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력을 일개 도시국가 안에 제한하지 말고 그리스 전역으로 펼쳐 통합을 이루고, 그 힘으로 페르시아를 향한 군사적 원정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디오뉴시오스 1세가 이듬해 세상을 떠나면서 이소크라테스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테네인이면서도 경쟁국, 아니 적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파르타의 왕 아르키다모스에게까지 편지를 보냈고, 그밖에도 여러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편지와 연설문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이소크라테스의 촉구에 귀를 기울였다. 이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보냈는데, 현재는 기원전 346년에 필리포스에게 보낸 장문의 연설문과 기원전 342년, 338년에 보낸 두 통의 편지가 남아 있다. 필리포스는 분명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조언에 따라 움직인 것 같다. 이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인 337년, 필리포스는 코린토스 동맹을 결성하여 그리스 세력을 규합한 후, 페르시아 원정을 위한 최고 사령관에 올랐다. 이제 이소

크라테스의 범 그리스주의 구상은 실현될 판이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필리포스가 뜻밖의 암살을 당했다. 이소크라테스의 꿈이 이대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아니다. 필리포스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로스가 그 꿈을 이루어내고 말았다. 20세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는 이소크라테스의 청사진에 따라 아버지가 마련한 토대를 위에서 기어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년 만에 그는 남쪽으로 이집트 왕국을 포함 지중해 동쪽 연안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마침내 페르시아를 그리스로 복속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나아가 인도의 서쪽까지 진군하여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였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알렉산드로스의 행보는 이소크라테스의 그림에 따른 것이며, 20세기 유럽 연합의 성립의 배경에도 이소크라테스의 이념이 굵게 깔려 있다. 비록 서양철학사의 영역에서 플라톤에게 밀린 이소크라테스이지만,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사의 흐름 속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은 플라톤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5. 수사학의 이상을 그린 플라톤

5.1. 소크라테스의 죽음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판정관들 앞에 섰다. 아테네가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들을 믿지 않았다는 불경죄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풍기문란의 죄로 고소당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열심히 변호했지만 유죄의 혐의를 벗지 못했고 사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최악의 결과였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플라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가 보기에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가? 플라톤은 교묘한 언변으로 진실과 정의를 왜곡한 고발인들이 미웠고, 그의 말에게 현혹되어 그릇된 판결을 내린 청중의 어리석음이 답답했으며, 재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아테네 민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깊은 회의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508년부터 클레이스테네스의 주도로 아테네는 민주정을 본격적으로 채택했다. 모든 자유 시민이 입법과 사법, 행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이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판사가 따로 없었다.

판사 역할은 일반시민들의 몫이었다. 연초에 제비를 뽑아 한 해 동안 판사 역할을 할 시민 6,000명을 정했고, 재판이 열리면 6,000명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 재판관을 결정했다. 이들을 ‘헬리아스테스(hēliastês)’, 또는 ‘디카스테스(dikastês)’라고 불렀다. 아테네의 법정을 ‘헬리아이아(Hēliaia)’라고 하고 재판을 ‘디케(dikê)’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나 그를 고소하여 유죄를 밝히려는 공적인 검사도 따로 없었다.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개인 대 개인이 소송에서 맞부딪히면 소송 당사자가 직접 고소의 변과 그에 맞서 변호를 해야만 했다. 연설문을 직접 쓰기 버거운 사람들은 대필가(logographos)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법정에서는 직접 연설을 해야만 했다. 종종 시민들 가운데 일부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서도, 명분상 공익을 내세우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지목해, 마치 자신이 검사나 되는 것처럼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그런 경우였다. 펠레토스를 비롯해 아뉴토스와 튀콘이 공적인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것이다.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 미사여구로 연설을 멋있게 꾸미고, 말을 재치 있게 배치하여 설득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진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온통 거짓말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신은 두서도 없고 꾸밈도 없지만,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말한다고 자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말투가 어떤지는 문제 삼지 마시고, 제가 정의로운 말을 하는지만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재판관의 덕이고, 연설가의 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⁹⁾ 연설가는 특별한 수사학적인 기교 없이도 정의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기만 하면 되고, 재판관은 현란한 말솜씨에 휘둘리지 말고 말의 진위와 사건의 적법성이나 위법성만 따지면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함축하는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관들은 고발인들의 미사여구에 휘둘리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말의 진정성만 받아들일 만큼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플라톤이 보기에, 재판이 최악의 결과를 내게 된 데에는 수사학의 영향력이

9)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18a.

가장 컸다. 스승의 죽음 이후, 플라톤은 평생 민주정과 수사학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비판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5.2. 수사학의 위험성

플라톤은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자칫 몸이 부실해지거나 병이 든다면, 의사의 돌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체육과 의학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몸을 체육으로 돌보지 않고 화장을 해서 혈색이 좋게 보인다면 몸에 유익할까? 몸에 좋은 약을 만들어주는 대신, 입에만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는 몸에 유익할까? 플라톤은 이 비교를 통해, 요리와 화장은 몸에 진짜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처럼 보이고 느끼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그래서 일종의 아첨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요리는 의술의 가면을 쓴 아첨의 기술이다. 마찬가지로 화장은 체육의 탈을 쓴 아첨의 기술이다. 그것은 모양, 색깔,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외적인 아름다움에는 매력을 느끼고 체육을 통해 얻는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무시하게 만든다.”¹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플라톤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를 정치학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의 정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권모술수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소위 ‘마키아벨리적 정치학’과 상관이 없다. 그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치학이라면, 플라톤의 정치학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국가’(polis)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지켜나가는 ‘기술’(-ikê), 즉 공동체적 삶의 기술이다. 이는 입법과 사법의 기술로 나뉘는데, 통치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다.

정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법과 제도로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마치 체력단련을 통해 몸이 건강하듯, 건강한 정신과 질서 잡힌 국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입법의 기술은 체육과 통한다. 한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욕망과 의지를 숨어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불의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도려낸다면, 마치 의사가 의술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듯, 타락하고 병든 마음과 공동체를 치유하

10)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465b

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법의 기술은 의학과 통한다.

그런데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입법과는 달리, 마치 정의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고 묘한 꾀변을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개인과 공동체는 힘을 잃고 병들어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소피스트의 기술이 마치 몸을 단련하지는 않고 오직 겉모습만 꾸며대는 화장의 기술과 같다고 생각했다. 한편, 불의를 도려내어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사법과는 달리, 불의가 정의인 양 변호하고 정의가 불의인 양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점에서 플라톤은 연설의 기술인 수사학을 요리와 같다고 생각했다. 수사학은 마치 요리가 혀에게 아침하듯, 청중의 귀를 달콤하게 현혹하여 정의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꾀변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소피스트의 기술과 수사학은, 플라톤이 보기에,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조장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기술이다. 게다가 정의로운 사람을 모함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한편, 죄인을 순결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악한 기술이기도 하다. 연설가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면서 수사학을 잘 이용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예컨대 잘 드는 회칼은 요리사의 손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지만, 불량배의 손에서는 강도와 살인의 도구로 전락하여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무고한 희생양이 된 것은 ‘잘 드는’ 수사학이 못된 연설가의 손에서 청중을 현혹하고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사학의 위험성은 연설가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지에 무지하거나, 무지를 숨기려고 할 때 생긴다. “연설가가 진정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청중 앞에서 아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것들에 관해 설득의 계책을 마련해 놓는다면”¹¹⁾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치 장님이 장님들의 앞에서 자신은 장님이 아니며 행선지가 어디인지 안다고 믿으면서 무모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무리를 이끄는 것과 같을 것이다.

5.3. 좋은 수사학의 조건

그러나 수사학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비유컨대, 누군가 검도를 수련하여

11)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459d-e.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당을 무찌르는 데 쓴다면, 검도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쓴다면, 검도는 위험천만할 것이다. 결국 검도의 위험성은 검도 자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검도를 쓰는 사람의 사악하고 일그러진 마음에서 나온다. 수사학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수사학을 익혀서 말에 진실을 담아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수사학은 유익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불의하게 사용하여 청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수사학은 해악한 기술이 된다. 따라서 유익과 해악의 문제는 수사학 자체가 아니라, 수사학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수사학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플라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수사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이상적 조건을 찾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사학을 ‘프쉬카고기아의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전체적으로 수사학은 말을 통한 프쉬카고기아의 기술이다. 법정과 그밖에 민회 같은 공적 회합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만남에서도, 사안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렇다.”¹²⁾

여기서 ‘프쉬카고기아’(psukhagôgia)란 ‘영혼’(psukh-)을 ‘인도하기’(agôgia)라는 뜻이다. 이 말은 원래 헤르메스 신이 죽은 자의 혼백을 저승의 세계로 인도하거나, 거꾸로, 마치 우리네 무당이 그러하듯, 사제들이 죽은 혼백을 이승으로 끌어내는 초혼(招魂)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나중에는 ‘혼을 쫓 빼놓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예컨대 시인이나 가수, 배우가 아름다운 시가(詩歌)나 매혹적인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가리켰다. 연설가나 소피스트가 교묘한 언변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것도 ‘프쉬카고기아’라고 했다. 플라톤이 이 단어로 수사학을 정의하려고 한 것은 수사학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려는 의도에서였을까? 아니면 수사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을까?

만약 연설가가 정의롭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청중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들로 현혹하여 설득하려 한다면, 그는 결국 정의롭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며, 그의 말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역시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 그가 수사학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그의 의견은 더욱 더 그럴듯하게 청중에게 들릴 것이며, 그만큼 더 많은 청중이 그의 말에 설득되어 그를

12)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261a-b.

지지하고 따를 것이다. 이때 수사학은 영혼을 이끄는 기술이 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험천만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설가가 제대로 알고서 수사학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청중의 영혼을 정의롭고 훌륭하며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수사학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것이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사학 자체가 아니라, 수사학으로 전달될 ‘참된 앎’(epistêtê)과 ‘지혜’(sophia),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철학’(philosophia)이다. “연설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려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의 생각을 그 연설에 담아야 한다.”¹³⁾

그런데 혹시 연설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고 청중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 플라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불의한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훌륭함을 아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추잡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지행합일을 믿던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었다. 그는 알고도 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 그가 알고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애초가 제대로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청중을 설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한가? 만약 그렇다면 수사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과 다를 바가 없고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플라톤은 철학과 수사학을 구분하기 위해, 수사학에 한 가지 중요한 지식을 덧붙인다. “말의 힘은 사람의 영혼을 이끄는 것(ψυκῆγογία)이기 때문에 수사학에 능하게 될 사람은 영혼의 부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¹⁴⁾ 듣는 사람의 영혼, 즉 그의 품성, 성격, 감정, 취향, 관심사, 지적인 수준 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연설가는 그들에 적합한 말을 골라내서 말을 함으로써, 청중을 제대로 설득하고 올바른 길로 쉽고 편안하며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에 이르는 것이 철학의 일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여 청중의 영혼을 진리의 세계로, 정의와 훌륭함과 아름다움의 경지로 인도하는 것은 수사학의 일이라는 뜻이겠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수사학의 핵심이었다.

13)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260e.

14)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271d.

6. 수사학의 체계를 세운 아리스토텔레스

6.1.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편력과 성향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저작들은 백과사전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물리학, 기상학, 천문학 등과 같은 자연학에서부터 식물과 동물을 다루는 생물학,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심리학을 거쳐,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윤리학과 정치학까지, 현존하는 작품만 보더라도 그의 지적 편력은 독보적이다. 거기에 서양문학 비평의 금자탑을 이룬 시학과 연설의 수사학이 더해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존재 자체를 규명하려고 했던 형이상학은 서양철학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취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런 박학다식함 때문에 그는 위대한 정복자인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방위적인 학문적 탐구의 출발점에는 논리학이 있다. 서양 논리학의 기초를 세운 이가 바로 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귀납과 연역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발명품이다. 구체적 사례들을 모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귀납’이라고 한다. 거꾸로 그렇게 세워진 보편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하는 것을 ‘연역’이라고 한다. 귀납에서 연역으로, 그리고 다시 연역에서 귀납으로 오가며 학문적 탐구가 진행된다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은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을 지켜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삼단논법(sullogismos)’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추론의 형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명제들을 보증한다. 물론 건전한 추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추론을 이루는 개념들이 명료하게 정의되어 범주론적인 혼란이 없어야 한다. 단어들이 제대로 엮이어 문장이 잘 구성되고, 그런 문장들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어져나간다면, 한 권의 책은 특정 주제와 대상에 관한 진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본토 북쪽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에서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왕실 주치의였다. ‘니코마코스’라는 이름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손자의 이름과 같다. 신화 속 니코마코스의 아버지는 마카온인데, 트로이아 전쟁에 참여하여 군의관으로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던 전설적인 인물이다. 니코마코스라는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집안이 대대로 의술을 업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풍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성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경험과 실험, 감각, 물질, 육체에 대한 관심이 그의 학풍에 깔려 있는 것이다. 자연학과 생물학 등에 관한 관심은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니코마코스는 왕궁에 번진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아내와 함께 감염되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13세에 고아가 된 아리스토텔레스는, 18세가 되자 공부를 하기 위해 아테네로 떠났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가 되어 18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지냈다. 그러나 그는 플라톤의 가르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에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감각적인 이 세상 자체에 대해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탐구했다. 특히 정치적인 현실에 민감했다. 그가 정치학과 윤리학, 특히 시학과 수사학에 대해 보여준 관심은 그가 플라톤과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인간의 감성과 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탐구했다. 또한 의회와 재판정에서 청중을 설득하는 수사학에 대해서도 플라톤은 대중을 선동하는 불량한 기술이라고 비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훌륭한 기술이라며 수사학의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 대해 가졌던 관심은 아마도 이소크라테스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아테네에 왔을 때에 처음 찾은 곳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아니라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를 떠나고, 다시 아테네로 복귀했을 때, 이소크라테스의 학교가 있던 튀케이온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를 우연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소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학문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에 충실하였다. 그에게 철학은 급변하는 정치현실 속에서 시의적절한 의견

을 제시하여 공동체의 이익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었다. 그것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말의 교육에 전력했다. 말은 한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서 듣는 이의 마음에 새겨 넣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말의 교육, 즉 연설의 교육이란 단순히 말재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는 생각과 품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노력이 철학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수사학(rhêtorikê)’, 즉 ‘연설가(rhêtôr)의 기술(-ikê)’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소크라테스가 수사학에 전념하더라도 존재의 참된 본질을 알고 있다면 그 역시 철학자(philosophos)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진리에서 벗어나 한갓 여론과 의견(doxa)이나 만들어내는 호사꾼(philodoxos)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말하는 영원불변하는 존재의 세계인 이데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허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그는 플라톤이 세운 철학의 왕국에 들어가길 거부했다. 그는 자신만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현실적인 철학을 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대립하는 두 사람을 모두 사사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모종의 균형과 조화, 통합을 구상했던 것 같다. 그는 플라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초월적인 이데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영원불변하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존재론이나 수학, 기하학, 천문학과 같은 자연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성향은 플라톤의 이상에 가까웠던 반면, 윤리학과 정치학의 분야에서는 이소크라테스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천적인 지혜와 현명함(phronêsis)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통념(endoxa)을 중요하게 여긴 점은 그가 플라톤보다는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소크라테스 역시 인간의 행동과 공동체의 운영에서는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없으며, 개연성과 구성원 개인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doxa)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문적 지향은 아마도 그가 나라를 다스릴 알렉산드로스 왕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왕에게는 과학적인 지식과 형이상학적인 통찰도 도움이 되겠지만, 통치자로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합리적인 정치

적 판단을 세우고 설득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왕실의 교사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학문에 더욱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6.2.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아테네는 민주정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 곳이었다. 아테네에선 본국 출신의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직접 상대를 기소하는 검사가 되어야 했고, 자신이 피고인이라면 무죄나 정상참작을 위한 변호를 해야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맡은 배심원 또는 판사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민회가 소집되면 회의장에 나아가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고, 제시된 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따로 없었다. 이렇듯 입법과 사법, 게다가 행정에까지 시민들은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민(politês)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정치적인(politikê) 행동이었다.

따라서 공적인 장소에서 연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시민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에 속했고, 설득과 소통의 기술로서의 수사학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었고 교육의 핵심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주목했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말로 소통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며, 일치단결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꾸려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수사학을 정치학과 윤리학과 관련시켜 최상의 학문으로 평가하기도 했고, 마침내 『수사학』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그 책은 서구 수사학의 체계를 세운 기념비적인 저작이었다.

그는 아테네의 정치적인 현실을 전제로, 재판정에서든, 민회에서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축제나 추모식, 개선식 등에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설득은 곧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의 편으로 얻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사실에 부합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은 사실에서 벗어나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며, 논리에서 어긋나면 그 말을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못하기 때문이다. 연설가가 명확한 개념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후에, 사실과 논리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반박한다면, 청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설령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킬 수는 있다. 이와 같은 설득의 비결을 아리스

토텔레스는 우리 마음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인 로고스(logos)에서 찾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욕망이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분노한 사람과 차분한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이며, 말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청중의 욕망과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것도 연설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이야기를 꺼낼 때 중요하다. 연설가가 시작부분에서 청중의 호감과 관심을 얻지 못한다면, 본문에서 아무리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설득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청중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말하려는 주제가 왜 중요한지, 청중의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각시킨다면, 청중은 주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와 마음을 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파토스(pathos)라고 불렀다. 말을 통해 청중의 마음에 적절한 분노를 일으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며, 슬렁이던 청중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그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중의 호감을 얻는다면, 연설가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특히 청중이 연설가에 대해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연설가의 주장은 더욱 더 힘을 얻게 된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설가의 품성(ethos)이라고 불렀다. 청중이 연설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고 다소 어눌해도,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소 빈약해도 청중은 연설가의 말에 잔뜩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설득은 그만큼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감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청중의 관심과 호감, 신뢰를 얻은 후, 본문으로 들어가 사실과 논리에 어긋남이 없이 논지를 전개해 나가며 반론을 반박한다면 청중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 요소를 덧붙인다. 용을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눈동자에 점을 찍어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듯이(畫龍點睛), 결정적인 임팩트를 결론에 가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결론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할 것. 둘째, 청중의 마음에 적절한 공포와 희망을 불어넣을 것. 즉 청중이 연설가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그 아름다운 희망을 청중의 마음속에 그려주는 한편, 그 반대의

경우에 청중들이 겪어야 할 나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그려주어 합리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내놓는 서론-본론-결론의 틀에 말감이 정리되면, 이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일이 남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부각한다. 첫째,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할 것. 둘째, 참신한 표현으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 이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칫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떠돌게 될 생각을 생생한 이미지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연설의 표현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성공적인 설득의 전략을 세 권으로 이루어진 『수사학』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게 펼치고 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것인가,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2,40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책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구인들이 토론과 설득, 반박과 수사에 능한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회찬의 말과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다른 많은 점에서도 탁월성이 돋보이지만, 특히 은유의 적절한 사용에서 노회찬의 말과 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다. 그가 2008년에 민주노동당을 나와 진보신당을 창당하고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말은 은유 구사 능력의 탁월성을 잘 보여준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두 동강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의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아직 병아리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낡은 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나마도 죽어 버리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왔고, 껍질을 깨도 나옴으로써 앞으로 새벽을 알리는 장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¹⁵⁾

7. 결론

지금까지 소피스트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기 수사학의 핵심을 추려서 전체적인 열개를 그려 보았다.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행동과 정치의 영역에서 수사학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소

15) 노회찬, 노회찬재단(준) 기획 (2019) 『노회찬, 함께 꾸는 꿈』, 후마니스트, 59쪽.

통을 전제로 공감과 설득의 기술로서 작동함을 보았다. 힘이나 돈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말로써 다투고 논의하며 결론에 다가서려는 노력은 이성을 갖추고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가장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의 방식임을 확인했다. 그리스의 고전 수사학을 골격으로 서양의 수사학은 2,500여 년 동안 같고 닮아 왔다. 이것이 한 정치가의 말과 글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매우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신뢰할 만한 기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발표에서는 발표자의 역량과 주어진 기간의 한계로 이 기준을 사용하여 노회찬의 말과 글을 폭넓게 분석하고 평가하지는 못했다. 고전 수사학의 역사와 개념과 체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노회찬의 말과 글의 작은 편린만을 단순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소개했을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노회찬의 말과 글을 수사학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하여 수사학적 품격을 갖춘 정치적 언어로 대중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쟁취하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제2의 노회찬, 더 성장한 노회찬의 등장을 열망하며, 그의 연설 두 부분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 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 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¹⁶⁾

지금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집권 안 해본 당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략]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채워 나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릇을 키워 나가는 것은 더 많은 민심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중략] 민심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힘을 담아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해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당부의 말씀을 축하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¹⁷⁾

16) 노회찬 (2019) 위의 책 142-143쪽.

17) 노회찬 (2019) 위의 책 142-143쪽.

주제 강연

기버(Giver)의 전언(傳言):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의 수사(修辭)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주제강연(2) 기버(Giver)의 전언(傳言):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의 수사(修辭)

안성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 서론: 수사(修辭)란 무엇인가?

노자의 [도덕경]과 공자의 [논어]는 모두 ‘도(道)’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자와 공자는 모두 ‘수사(修辭)’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수사’라는 표현은 [주역(周易)]¹⁸⁾에 기인하는데, [주역] <건괘(乾卦)>편 구삼(九三)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아서, 저녁에도 두려워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無咎.

그리고 이러한 경(經)의 내용에 대해서, 해설서인 전(傳)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언(文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삼효(九三爻)에 이르기를: “군자는 종일 의지하지 않고, 저녁에도 두려워 하니, 위태로워도 재앙이 없다.” 이는 어떤 것을 이르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덕에 정진하고 공적을 쌓음에 정성스럽고도 성실하기에, 그러므로 덕에 정진하게 되고;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게 된다. 힘쓰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힘쓰니, 가히 쫓아서 살필 수 있고; 이루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니, 가히 쫓아서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고로 윗자리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고로 의지하지 않고, 그 때를 맞춤에 말미암아 두려워하니, 비록 위태롭더라도 재앙이 없는 것이다.” 九三：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無咎。何謂也？子曰：“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知至至之，可與幾也；知終終之；可與存義也。是故居上位而不驕，在下位而不憂。故乾乾，因其時而惕，雖危無咎矣。”

이를 통해서 “말을 닦음에 그 성실함을 세우기에, 그러므로 공적에 머무르게 된다.”는 뜻을 지닌 “수사입기성, 소이거업야(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는 “말을 잘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그 성실함을 확고하게 하므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로 풀이되고, 또한 수사(修辭)는 바로 ‘정성 성(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18) [周易(주역)]은 유가사상을 존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13경(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易經(역경)]이라고도 불린다.

을 확인할 수 있다.

‘닦을 수(修)’는 사람이 두 손을 번갈아 가며 써서 실이나 털을 다듬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닦을 수(修)’는 사람이 수건을 가지고 죽은 정성을 다하여 시체를 닦듯이 실이나 털을 정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 사(辭)’는 죽을죄를 다스리는 발언을 뜻하는데, 이는 결국 하늘이 정해놓은 규범 즉 도(道)를 어긴 죄를 판결함에, 가까이 있는 것(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도리)을 인용하여 먼 곳에 있는 것(실제 발생한 사건)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사사로움을 최대한 배제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올바른 도리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도리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말 사(辭)’는 다름 아닌 법정에서 공정하게 죄를 판결하는 판결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언급한 수사(修辭)는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나 기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로 내려오는 도리 즉 도(道)를 기록한 문(文)의 내용에 근거하여 시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나아가 올바른 도리를 명확하게 천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성 성(誠)’은 ‘말씀 언(言)’과 ‘이루다, 완성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이룰 성(成)’이 합쳐진 글자이므로,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 언(言)’을 ‘이룰 성(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됨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성을 다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동양에 있어서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만이 그 참된 가치를 오롯이 지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道)의 이론적 성격을 지니는 옛 서적들에 적혀있는 문장(文)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림으로써 상대방을 깨우쳐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사(修辭)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修辭)는 오늘날 알려진 문장을 수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올바른 도리인 도(道)의 이론이 되는 문장(文)을 명확하게 천명하여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이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한다는 이른바 실천적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수사(修辭)는 이론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이론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와 공자는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활용했을까? 먼저 노자의 경우를 하나 살펴보자.

23-1: (지도자가) 말을 드물게 하는 것이 스스로 그러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광풍은 아침까지 불 수 없고, 폭우는 온종일 내릴 수 없다. 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여기서 하나 밝혀둬야 할 것은 노자와 공자는 BC 6~5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AD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노자와 공자의 발언을 접하면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단어나 문법구조조차도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으므로. 따라서 노자와 공자의 발언 다음에는 부차적으로 오늘날의 현대적 풀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자가 말과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르는 것이다. 광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의 난폭함조차도 계속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법률과 제도로 누르면 오래갈 수 있겠는가? 즉 억지로 누르면 일시적으로 작용할 뿐, 계속될 수는 없다.” 이처럼 노자는 여기서 지도자의 말과 명령을 일시적인 광풍과 폭우에 빗대어 수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공자가 ‘수사’를 활용하여 설명한 사례 역시 살펴보기로 하자.

12-19: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기를: “만일 무도한 사람을 죽여, 도가 있도록 이루면 어떻겠소?”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그대는 정치를 함에, 어찌 죽임을 사용하십니까? 그대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백성이 선을 행할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는 법입니다.”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曰: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而民善矣。君子之德, 風; 小人之德, 草。草上之風必偃。”

이를 현대적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⁹⁾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만약 강력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함으로

19) 이후로는 별도의 설명없이 바로 추가적인 현대어 풀이를 이어서 제시하려고 한다. 공자의 발언에 대한 세부적 풀이는 [군자 프로젝트(안성재, 2022, 어문학사)], 노자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통합시킬 주역은 누구인가?(안성재, 2020, 진성북스)]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써, 백성들이 겁을 먹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면 어떻소?” 이에 공자가 대답하셨다. “그러한 엄격한 법치는 오래갈 수 없으니, 먼저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백성들 역시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바람이라면, 백성들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기울어지는 풀인 민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백성들을 민초(民草)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계강자가 강력한 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함으로써, 백성들이 이에 겁을 먹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면 어떤지 묻자, 공자는 그러한 엄격한 법치를 반대했으니, 지도자를 바람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풀에 비유함으로써 먼저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백성들 역시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된다는 이른바 솔선수범(率先垂範)인 것이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노회찬 발언을 살펴보자,

“저는 그보다 주장이 어떻게 잘 전달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배달증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²⁰⁾

여기서 노회찬은 ‘수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나마 ‘수사’가 가지는 본연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발언 역시 살펴보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보통의 경우처럼 말하면 1분도 듣지 않고 가버립니다. 얘기가 쉽고 재미 있어야 합니다. 재미 속에 내용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들은 뒤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²¹⁾

노회찬은 여기서 ‘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말하려는 본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써야 한다고 노회찬은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수사는 말의 내용 즉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종의 형식적인 도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20)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9쪽

21)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33쪽

그 형식이 없다면 내용 역시 세상에 올바르게 드러날 수 없게 된다.

2. 본론: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의 ‘수사’

2-1: 기버(Giver)의 전언(傳言)

노자는 자신이 [도덕경]에서 설명한 도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21-7: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니, 그럼으로써 “중포”를 관찰한다. 自古及今, 其名不去, 以閱衆甫。

고금이래로 대동사회 통치이념의 명분은 끊임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21-8: 내가 어찌 만물의 상황을 알겠는가? 이 때문이다. 吾何以知衆甫之狀哉? 以此。

나 역시 일개 사람일진데, 어떻게 이렇듯 심오한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을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바로 상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덕치의 실례들을 보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42-5: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나 역시 그것을 가르친다. 人之所教, 我亦教之。

나는 사관의 신분으로 고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대동사회를 이끌었던 성인의 도를 이해했고, 이제 이 가르침을 다시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한다.

54-7: 내가 어찌 세상이 그러함을 알겠는가? 이 때문이다. 吾何以知天下之然哉? 以此。

내가 어떻게 이렇듯 오묘한 세상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바로 상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덕치의 실례들을 보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57-2: 내가 어찌 그것이 그러함을 알겠는가? 이 때문이다. 吾何以知其然哉? 以此。

내가 어떻게 그러한지 알 수 있었겠는가? 바로 상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덕치의 실례들을 보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62-5: 예부터 이러한 도를 귀히 여김은 어찌된 것인가? 古之所以貴此道者何?

도대체 왜 예로부터 이처럼 대동사회의 통치이념인 도를 그토록 중시했던 것일까? 이는 노자뿐만이 아니다. 공자 역시 [논어]에서 자신이 설명한 도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7-1: 공자가 이르시기를: “서술하지만 창작하지 않고, 믿어서 옛 것을 좋아하니, 슬그머니 나를 노팽에 견주어본다.”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공자가 말씀하셨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임의로 지어내지 않으며, 또 옛 성현들의 도를 믿고 따르는 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노팽에 비유하여 표현해본다.”

이처럼 노자와 공자는 모두 자신이 전하고자 한 도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자는 ‘도가’사상의 비조가 아니고, 공자는 ‘유가’사상의 창시자가 아니다. 노자와 공자의 사상이 상호 배척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더욱이 어불성설(語不成說)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노자는 대동 사회를 이끈 지도자 ‘성인(聖人)’의 리더십인 ‘하늘의 도(天道)’를 설파한 반면, 공자는 소강 사회를 이끈 지도자 ‘군자(君子)’의 리더십인 ‘사람의 도(人道)’를 강조했다.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의 도’가 ‘하늘의 도’를 원형으로 하여 확대 변형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노자와 공자의 공통점은 압도적으로 그 상이한 점을 능가한다. 이어서 다음의 발언을 살펴보자.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가 언젠가 했던 말이에요.”²²⁾

노회찬은 사석에서 몇 차례나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역시 노자

22)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7쪽

나 공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언이 일개인의 창의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편타당한 도리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어찌 노회찬 일개인의 발상일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 역시 새로운 사상이나 가치관을 창조한 인물이 아닌, 노자와 공자가 걸었던 기버(giver) 즉 기억 전달자의 길을 역시 걷고자 했던 것이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더 기버(The Giver)>는 1993년 출판된 로이스 로우리(Lois Lowry)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인류는 대과멸을 겪은 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선택했는데, 이는 모두의 행복을 위한 명분으로 탄생한 인위적인 설정이었다. ‘커뮤니티’는 과거 전쟁이나 기아 등의 재앙들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 완벽한 평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같은 상태(Sameness)라는 개념을 창시하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원인을 통제한다. 특히 사람들의 행동, 언어, 직업, 피부색 심지어 날씨와 감정까지도 철저히 통제하여 완벽한 세상을 꿈꾸지만, 주인공 조나스(Jonas)가 ‘기억 보유자(Giver)’라는 직위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조나스가 ‘기억 보유자’가 되자 당시의 ‘기억 보유자’는 후대 기억 보유자에게 기억을 전달하는 기억 전달자로 작위가 변경되는데, 조나스는 선대 기억 보유자였던 ‘기억 전달자’에게서 기억을 하나하나 전달받으며 그간 통제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슬픔, 고통 등의 감정들을 서서히 되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모순을 깨닫고 개인의 삶과 행복을 훼손하는 시스템에 반기를 들게 되자 결국 ‘커뮤니티’는 붕괴의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거 태평성대를 이끈 참된 지도자들의 리더십인 ‘도(道)’에 대한 ‘기억 보유자’이자 ‘기억 전달자’였던 노자와 공자 그리고 현대판 ‘기억 전달자’ 노회찬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2-1: 기버(Giver)들의 수사(修辭)

노자는 [도덕경] 77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77-1: 하늘의 도는, 그것이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天之道，其猶張弓與!

‘하늘의 도’는 마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준하고, 그런 후에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77-2: 높으면 그것을 낮추고, 낮으면 그것을 높여주며, 남으면 그것을 덜어주고,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해준다.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조준한 것이 목표보다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며, 힘이 남으면 빼고, 부족하면 더해주는 것이니, 이는 바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中)’과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화(和)이다.

77-3: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함을 보충해준다.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하늘의 도’는 이처럼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서 부족한 쪽으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77-5: 누가 풍족함으로써 세상을 받들 수 있겠는가? 孰能有餘以奉天下?

과연 누가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서 부족한 쪽으로 보충해주어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77-6: 도가 있는 자이다. 唯有道者。

바로 ‘하늘의 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성인’이다
그렇다면 노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공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6-3: 자화가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니, 염자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식량을 청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 여섯 말 너 되를 주라.”더 청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 열여섯 말을 주라.”(하지만) 염자는 식량 여든 섬을 주었다. 공자가 이르시기를 “: 적이 제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었다.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궁핍한 이를 돕지, 부유한 이에게 보태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子曰:“與之釜。” 請益。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裘。吾聞之也, 君子周急, 不繼富。”

특히 공자는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궁핍한 이를 돕지, 부유한 이에게 보태주지는 않는

다.”라고 지적하였으니, 이를 통해서 공자는 자신의 군자에 대한 가치관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치관을 오롯이 전승하려고 했던 것이지, 결코 자신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서 이러한 태도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中)의 태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16-1: 공자가 이르시기를: “구야! 군자는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을 미워한다. 내가 듣기로 나라를 이끄는 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게 베풀어지지 않을까를 근심한다고 하며, 가난할까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대개 고르게 베풀어지면 가난함이 없고, 화목하면 적지 않으며, 편안하면 기울어지지 않게 된다. 무릇 이와 같기 때문에, 고로 먼 곳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곧 문(文)과 덕(德)을 닦아서 오게 하고; 이미 왔으면 곧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孔子曰: “求! 君子, 疾夫舍曰欲之而必爲之辭.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既來之, 則安之.”

공자가 말씀하셨다. “염구야! 군자는 욕심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당위성을 내세워 합리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듣기로 나라를 이끄는 자는, 백성의 숫자가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르게 베풀어지지 않을까를 근심한다고 하며, 백성이 가난할까 근심하지 않고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지 못할 까봐 근심한다고 한다. 대개 고르게 베풀어지면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게 되고, 화목하면 백성이 몰려와서 그 숫자가 적지 않게 되며, 편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게 된다. 무릇 이와 같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닌 타지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곧 문(文)과 덕(德)을 닦아서 오게 하고; 이미 왔으면 곧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

이어서 노회찬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2016년 7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피력한 바 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²³⁾

이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中)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려는 조화로움(和)에 대해서 역설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4월 토론회에서는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23)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31쪽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음식 먹은 거 누가 탓합니까, 그런데 옆에서 굶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 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라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²⁴⁾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다. 그래서 노자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60-1: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으니, (지도자가) 도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면 그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治大國若烹小鮮，以道莅天下，其鬼不神。

작은 생선을 급하게 구우려고 들면 십상팔구 흘러당 새카맣게 타버리므로, 천천히 세심하게 구워야 골고루 제대로 익힐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나라는 선불리 달려들었다가는 마치 생선이 타버리는 것처럼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신중에 또 신중해야 하니, 음과 양 나아가 부드러움과 강함을 조화롭게 하는 하늘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사회의 이름답지 못하거나 선하지 못한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의 이름답지 못하거나 선하지 못한 어두운 면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가지지 못한 이와 쉬운 일만 한 이 그리고 재능이 많지 않은 이와 신분이 낮은 이, 구성요소들이 온전하게 합쳐지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 나아가 뒤쳐진 이들의 삶이 사회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아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노자는 지도자가 대동 사회의 통치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두운 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60-2: 반드시 그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밝음은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 非其鬼不神，其神不傷人。

음양학에서 ‘귀신 귀(鬼)’는 음을, 그리고 ‘귀신 신(神)’은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밝음

24) [언제나, 노회찬 어록(강상구, 2019, 루아크)] 98쪽

이란 음과 양의 조화에 있어서 양을 나타내므로, 이는 가진 이와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해낸 이 그리고 재능이 많은 이와 신분이 높은 이, 구성요소들이 온전하게 합쳐진 완전체와 앞선 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음처럼 풀이된다. “약자층의 삶이 사회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아서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득권층이 약자층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각자 고유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바뀌 말해서 기득권층이 약자층을 차별하거나 냉대하지 않고 존중하여 각자의 길을 가면, 약자층의 삶이 사회의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조용히 흘러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60-3: 반드시 그 밝음이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 성인 역시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 非其神不傷人, 聖人亦不傷人。

기득권층이 약자층을 차별하고 냉대하지 않아서 사회가 조용해지면, 대동 사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인 성인은 기득권층과 약자층의 관계가 더욱 조화로워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한층 더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배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지, 무조건적 균등분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일과가 끝나면 공장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달걀 5개씩 나눠준다면, 이걸 분배의 형평성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어제 과음했다면서 구석을 찾아 온종일 잠만 자고 퇴근 시간에야 부스스 일어나 달걀 5개를 고스란히 다 받아간다면, 이걸 무조건적 균등분배이다. 어떤 이가 급한 일이 생겼다면 중간에 일을 멈추고 공장을 벗어나고, 심지어 또 어떤 이는 몸이 아프다면 출근도 하지 않고 달걀 5개를 받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대다수의 기분은 어떨까?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상습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도 사라진다. 따라서 온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달걀 5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성과에 따라 차등분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분배의 형평성이다. 물론 달걀을 1개도 받지 못해서 굶주리는

이가 생기면 안 된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 즉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분배의 형평성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면 안 된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²⁵⁾

또 노자는 다양성의 존중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2-1: 세상 모든 이들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는 이유는 바로 추함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고, 모든 이들이 어떤 것인 선한 것인지 아는 이유는 바로 선하지 못함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天下皆知美之為美，斯惡已；皆知善之為善，斯不善已。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나치리만큼 이른바 정예반 양성에만 몰두하는 듯하다.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면, 그 안에는 자연스레 다수의 하위층과 그 다음가는 중위층 그리고 소수의 상위층이 형성된다. 그것이 공부나 되었건 또는 운동이 되었건 간에. 그런 다음에, 이른바 리더는 그 상위층만을 뽑아 중용한다. 심지어 어떤 리더는 각 그룹의 상위층들만을 모아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시 상위층만을 선발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아폴로 신드롬(Apollo syndrome)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학자 메리디스 벨빈(Meredith Belbin)이 처음 도입한 이 용어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1960년대 영국의 한 대학에서 10년에 걸쳐 팀 역할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중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된 팀을 아폴로 팀이라고 명명했다. 물론 여기서 아폴로는 아폴로 우주선을 만드는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뜻을 지녔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팀의 성취도는 다른 팀보다 더 두드러지지 못했다. 서로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등, 집약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노자는 결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것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노자는 2-1에서도 아름다움의 반대인 추함에 대해서는 포용의 자세를 취했지만, 선량함의 반대가 되

25) [대한민국을 통합시킬 주역은 누구인가?(안성재, 2020, 진성북스)] 494~495쪽

는 악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선량하지 못함에 대해서만 말했다. 따라서 악함은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존재와 분명히 구분되어 격리되어야 한다. 핵폐기물을 격리시키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면, 모두가 죽을 뿐이다.

이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공자와 노회찬의 발언에서도 찾을 수 있다.

7-7: 공자가 이르시기를: “몸소 마른 고기 한 묶음 이상의 예물을 들고 찾아오면,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적이 없다.” 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나는 김치를 더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시금치를 더 좋아하고, 그러면 김치도 있고 시금치도 있는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²⁶⁾

서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틀림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다름은 어느 쪽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노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63-1: (성인은) 무위를 행하고, 일이 없음을 행하며, 무미함을 맛보고, 작은 것을 중히 여기고, 적은 것을 중히 여기며, 원한을 갚음은 덕으로 한다. 為無為, 事無事, 味無味, 大小, 多少, 報怨以德。

참된 지도자는 백성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련해준 후에는 마치 그들을 버린 듯이 하여 간섭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강화해서 통제하지 않고 각자 천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한다. 또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것을 피해서 평탄한 하늘의 도를 따르고, 아무리 작은 일이거나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서 다가간다. 그리고 타인이 해를 끼쳤을 때, 타인의 잘못은 너그러이 감싸고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로 원한을 갚아야 한다.

79-1 큰 원한은 화해시키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여 원한의 잔재가 있다면, 어찌 훌륭하다고 할

26)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113쪽

수 있겠는가? 和大怨，必有餘怨，安可以為善？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어찌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라면서 제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희생자가 생기고 또 그들에게 원망을 받는다면, 그런 인물은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없다. 결국 이 두 구절은 모두 아무리 작은 목소리나 적은 소수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쳐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소수의 백성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공자 역시 참된 지도자는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5-23: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말로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으로 말을 버리지 않는다.” 子曰: “君子，不以言舉人，不以人廢言。”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만 잘한다고 그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또 사람이 변변치 않다고 해서 그 말까지 함부로 버리지는 않는다.”

15-28: 공자가 이르시기를: “여럿이 미워해도, 반드시 (맞는지 직접) 살피고; 여럿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맞는지 직접) 살펴야 한다.” 子曰: “衆惡之，必察焉；衆好之，必察焉。”

공자가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해도 그 이유가 합당한지 반드시 직접 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그 이유가 합당한지 반드시 직접 살펴야 한다.” 그리고 노회찬의 다음 발언 역시 노자나 공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들어야 한다. 또 전달받는 쪽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생각과 처지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잘 안 듣거나, 원하는 것만 듣다 보면 이야기할 때 자기 합리화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현상이 생긴다”²⁷⁾

“경청이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려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자세에선 경청이 불가능합니다.”²⁸⁾

27)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53쪽

28)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54쪽

‘성인 성(聖)’은 ‘귀 이(耳)’와 ‘드릴 정(呈)’이 합쳐진 것으로 뜻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결합된 형성(形聲) 문자이다. 그런데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보통 뜻도 함께 주므로, ‘드릴 정(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의미도 제공한다. 즉 이 글자는 “아랫사람이 드리는 보고 내용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하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바로 성인이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도자에게도 성인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이처럼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성인의 마음가짐은 어떤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1: (지도자가) 몸을 다스림에 하나로 파악하여, 둘로 나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載營魄抱一，能無離乎？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一)’이다. 그렇다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핸드폰을 사려고 한 매장에 들어간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여러분은 흰색 모델을 사고 싶은데, 점원이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에는 검은색 한 종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매장에 준비된 핸드폰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검은색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잡념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만 전념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문장은 마땅히 “지도자가 자신을 부단히 갈고닦아서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풀이해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계속해서 말한다.

39-1: 자고로 하나를 얻음에 있어, 하늘이 하나를 얻으면 청명하고, 땅이 하나를 얻으면 평온하며, 오묘함이 하나를 얻으면 영험해지고, 계곡이 하나를 얻으면 넉넉해지고, 만물이 하나를 얻으면 생동하고, 천자와 제후가 하나를 얻으면 세상의 충정이 된다. 昔之得一者，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神得一以靈，谷得一以盈，萬物得一以生，侯王得一以為天下貞。

옛날부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일한 덕을 얻음에 있어서, 하늘이 순일한 덕을 품으

면 사념이 없이 맑고도 밝아지고, 땅이 순일한 덕을 품으면 고요하고 평안해지며, 오묘함이 순일한 덕을 품으면 거룩하고도 슬기로워지고, 자애로움이 순일한 덕을 품으면 충만해져 여유가 있게 되며, 만물이 순일한 덕을 품으면 생기가 감돌게 되고, 지도자가 순일한 덕을 품으면 세상이 충실하고 올바르게 된다.

39-2: 그것을 그만두게 되어, 하늘이 청명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고, 땅이 평온하지 않으면 흩어질 것이며, 오묘함이 영험하지 않으면 멈출 것이고, 계곡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며, 만물이 생동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천자와 제왕이 귀히 여기고 숭상하지 않으면 와해될 것이다. 其致之, 天無以清將恐裂, 地無以寧將恐發, 神無以靈將恐歇, 谷無以盈將恐竭, 萬物無以生將恐滅, 侯王無以貴高將恐蹶。

하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일한 덕을 얻지 못하여, 하늘은 사념이 없이 맑고도 밝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고, 땅이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흩어질 것이며, 오묘함은 거룩하고 슬기롭지 않으면 멈출 것이고, 자애로움은 충만하여 여유가 있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며, 만물에 생기가 감돌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숭상하지 않으면 나라가 와해될 것이다.

공자 역시 ‘하나(一)’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4-15: 공자가 이르시기를: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그것(도)을 꿰뚫는다.” 증자가 말하기를: “예.” 공자께서 나가셨다. 문하의 제자가 말하기를: “무엇을 이르신 것입니까?”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는, 충(정성스러움)과 서(남의 처지에 서서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 뿐이다.”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15-3: 공자가 이르시기를 “사(자공)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아니다. 나는 하나로 일관하는 것이다.” 子曰: “賜也, 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 “然 非與?” 曰: “非也! 予一以貫之。”

그런데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 노자의 [도덕경]이나 공자의 [논어]보다 앞선 [상서]에 먼저 보인다.

아! 하늘을 믿기 어려운 것은 천명이 항구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 덕이 항구하면 그 지위를 보존하고, 그 덕이 항구하지 못하면 구주(세상)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라 왕이 덕을 능히 변치 않게 하지 못하여 귀신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해치자 황천이 보호하지 않고, 만방을 살펴본아 천명이 있는 이를 가르쳐 길을 열었습니다. 순일(純一)한 덕(德)이 있는 이를 찾아 돌보시니, 귀신을 받드는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 이윤은 몸소 탕(탕왕)과 함께, 모두 순일한 덕을 갖추서, 능히 천심을 누릴 수 있었으

니, 하늘의 밝은 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략) 하늘이 우리 상나라에 사사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순일한 덕을 도운 것이고, 상나라가 백성에게 청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순일한 덕으로 귀속한 것입니다. 덕이 한결같으면, 움직여서 길하지 않은 것이 없고, 덕이 두셋으로 나뉘면(한결같지 않으면), 움직여서 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嗚呼! 天難諶, 命靡常, 常厥德, 保厥位, 厥德匪常, 九有以亡。夏王弗克庸德, 慢神虐民, 皇天弗保, 監于萬方, 啓迪有命, 眷求一德, 俾作神主。惟尹躬暨湯, 咸有一德, 克享天心, 受天明命。(생략) 非天私我有商, 惟天佑于一德, 非商求于下民, 惟民歸于一德。德惟一, 動罔不吉, 德二三, 動罔不凶。[상서(尙書)] 〈함유일덕(咸有一德)〉

따라서 예로부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다름 아닌 오직 나라와 백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지도자의 머리속이 두셋으로 나뉘어 사리사욕을 탐하는 순간, 그 지도자는 물론이고 나라와 백성 역시 시름에 잠기고 만다. 이러한 맥락은 2017년 6월에 있었던 노회찬의 발언에서도 이어진다.

“정치의 눈에 국민이 가득하지 않으면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면서 노회찬은 2018년 정의당 신년회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다.

“가득 찰 포(飽), 배 복(腹)‘으로 배를 가득 차게 만들고, 절도(絶盜)는 도둑을 근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세금 도둑, 양심 도둑을 근절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회찬의 이 포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노자와 공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노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3-1: 재물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희귀한 물품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욕망을 일으킬만한 일을 접하지 않으면, 민심이 동요하지 않는다. 不尚賢, 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 使民不為盜。不見可欲, 使民心不亂。

지도자가 재물을 축적하는데 급급해하지 않으면, 백성들 역시 서로 가지려고 다투지 않게 된다. 지도자가 진귀한 물건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백성들 역시 이를 본받아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 지도자가 사리사욕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을 일으킬만한 일을 접하지 않으면,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게 됨으로써 민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19-3: 재주를 단절하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질 수 있다. 絕巧棄利, 盜賊無有。

지도자가 작은 죄를 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백성들 역시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된다.

57-6: 법령이 현저하게 증가하면, 도적들이 많아진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지도자가 자꾸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백성들은 오히려 이를 교묘하게 피해서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공자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2-3: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들을 다스림에 구실로 하고, 그들을 다스림에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피하려고만 들지 부끄럼은 없어진다. 그들을 다스림에 덕으로 하고, 그들을 다스림에 예로 하면, 부끄럼이 있게 되고 또한 바로잡게 된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도자가 온갖 세납을 늘리고 형벌을 강화하여 다스리면, 백성들은 조세와 형벌을 피하려고만 들지 부끄럼은 없어진다. 하지만 그들을 덕(성인들이 행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통치법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절개와 지조)과 예(조화로움을 위한 절제와 통제)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럼이 있게 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게 된다.”

그렇다면 술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는 먼저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노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

42-2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으로 향하여, 기운이 합해져 그림으로써 조화롭게 된다.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為和。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치는 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음과 양을 합쳐서 조화롭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학의 기본이다. 여기서 양은 밝음을 그리고 음은 어두움을 뜻한다. 또 조화로움의 화(和)는 밝음을 좇고 어두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한다. 진정한 조화로

움이란 단순히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부축하여 등에 업고 함께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2016년 국회가 공간이 부족하다며 국회 청소노동자들에게 휴게실과 노조 사무실을 비우라고 했을 때, 노회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 사무실을 같이 쓰시다. 역할은 다르지만,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어서요.”²⁹⁾

특히 복지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조화로움(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GDP의 57%를 함께 써요.”³⁰⁾

들,

32-5: 비유컨대 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마치 하천과 계곡이 강과 바다로 유입되는 것과도 같다. 譬道之在天下，猶川谷之於江海。

여기서 노자는 참된 지도자를 아래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거대한 바다에 빗대어 수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자는 말한다. “지도자가 몸을 낮춰 천성에 따라서 다스리면 백성이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여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도리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높은 곳에 있는 하천과 계곡의 물이 아래쪽에 있는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도 같게 된다.”라고.

66-1: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능숙하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江海所以能為百谷王者，以其善下之，故能為百谷王。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능숙하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계곡에서 나오는 모든 물줄기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유는, 강과 바다가 계곡 아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과 바다는 모든 계곡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29) [언제나, 노회찬 어록(강상구, 2019, 루아크)] 88쪽

30)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135쪽

노자가 설명하는 하늘의 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로 흐른다. 남들의 앞에 서고자 하면 그들 뒤에 처하고, 위에 있고 싶으면 아래에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야 한다. 또 이 두 구절은 덕을 닦고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결국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여기서 강과 바다는 겸손함 즉 겸(謙)의 메타포(metaphor)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과 바다를 겸손함의 메타포로 사용한 것은 노자뿐만이 아니다. 사실 노자보다 더 이른 연배의, 우리에게서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을 표현한 ‘관포지교(管鮑之交)’로 더 잘 알려진 관자(管子) 역시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다.

바다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다. 산은 자기에게 굴러오는 흙과 돌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므로, 그 높음을 이룰 수 있다. 뛰어난 군주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므로, 그 무리를 이룰 수 있다. 海不辭水，故能成其深。山不辭土石，故能成其高。明主不厭人，故能成其衆。 [관자(管子)] <형세해(<形勢解)>

이제 이어서 공자와 노회찬의 발언을 살펴보자.

6-13: 공자가 이르시기를: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는다. 패전하여 도망갈 때 후군이었다가, 성문을 들어가려할 때, 그 말을 채찍질하며, 말하기를: ‘감히 뒤쳐진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子曰: “孟之反不伐。奔而殿，將入門，策其馬，曰: “非敢後也，馬不進也。”

공자가 말씀하셨다. “노나라 대부 맹지반은 자기의 공로를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패전하여 도망갈 때 일부러 퇴각군의 후미에 처져서 쫓아오는 제나라 적군들을 상대하여 노나라 군사들을 보호하다가, 자신이 맨 마지막으로 성문을 들어가려 할 때, 그제서야 그 말을 채찍질하며, 말하기를: ‘감히 뒤쳐진 것이 아니라, 말이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물은 흐르면서 점점 낮은 곳으로 자리하고 낮아질수록 차츰 모여서 갑니다.”³¹⁾

31) [언제나, 노회찬 어록(강상구, 2019, 루아크)] 383~384쪽

이를 통해서도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은 단지 시대를 달리했을 뿐,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를 이끈 참된 지도자들의 리더십인 ‘도(道)’에 대한 ‘기억 보유자’이자 ‘기억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인물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수사’는 지속 가능한 실천의 시작

‘수사’는 복잡한 개념이나 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하고 나아가 몸소 실천하도록 하는, 즉 이론과 실천을 잇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노자와 공자의 ‘수사’는 2,500년 전의 언어 표현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쉬이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노자와 공자의 ‘도’에 대한 1차적 ‘수사’ 표현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풀어내는 2차적 ‘수사’의 작업을 거쳤음을 먼저 밝힌다.

앞서 ‘수사’를 통해서 노자와 공자 그리고 노회찬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가?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7-29: 공자가 이르시기를: “어쭙이 멀리 있는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이에 어쭙에 이르는 것이다.”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쭙(자기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다! 어질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와 초지일관하는 상(常)의 자세만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진심 어린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서 군주를 섬기고 따른다면, 춘추시대의 혼란 즉, 신하가 임금을 부정하고 심지어 시해하는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9-18: 공자가 이르시기를: “예를 들어서 산을 만드는데, 삼태기(흙을 담아 나르는 도구) 하나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땅을 고르게 하는데, 비록 한 삼태기를 덮더라도, 나아하면 내가 향하는 것이다.” 子曰: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

공자가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다 완성되어 흙을 담아 나르는 그릇 하나 분량의 흙이 모자랄 뿐인데도, 거기서 포기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땅을 고르게 하는데, 비록 흙을 담아 나르는 그릇 하나 분량의 흙을 덮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노력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스스로 앞을 향하여 매진하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실천’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나아가 모든 일은 “결과가 좋으면 내 덕분이고, 안 좋아도 역시 내 탓이다!”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공자가 강조한 이 두 가지의 정신적 가치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노회찬에게도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탓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민 탓을 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³²⁾

하지만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대전제는 바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즉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함을 유지하는 ‘중(中)’의 자세에서 출발한다. 한 나라의 정치 나아가 그 나라의 국운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일개인의 당락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철저히 국가와 국민의 이해(利害)관계로만 판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사랑하지만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지만 그 좋은 점을 아는 것이다. 而知其惡，憎而知其善。

편 가르기와 좌우 양극화로 점철된 대한민국은 [예기]가 말한 ‘중(中)’의 가르침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자와 공자 모두 강조한 바 있다.

5-4: 말이 많으면 누차 곤궁해지니, 중(中)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낫다. 多言數窮，不如守中。

2-14: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두루 미쳐서 편들고 가려서 뽑지 않지만; 소인은 편들고 가려서 뽑지 두루 미치지 않는다.”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변치 않고 초지일관하여 끝까지 견지하는 ‘상(常)’의 자세 없

32)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34쪽

이는 무의미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희대의 폭군이나 독재자들 역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처음에는 조국과 국민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했으므로, 처음부터 일을 그르치고자 하는 이는 없다. 그저 언제부턴가 초심이 변하여 작게는 자기 자신 그리고 크게는 조국과 국민을 망쳤을 뿐. 그래서 노자와 공자 역시 마찬가지로 ‘상(常)’의 자세를 강조했다. 먼저 노자의 발언을 살펴보자.

64-5: 사람들이 일을 함에 항상 거의 완성될 즈음에 그것을 그르치니,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신중하면, 곧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民之從事，常於幾成而敗之，慎終如始，則無敗事。

16-6: “상(변치 않음)을 알면 포용하고, 포용하면 이에 공정하고, 공정하면 이에 군주가 되고, 군주가 되면 이에 하늘에 순응하게 되고, 하늘에 순응하면 이에 도를 따르게 되고, 도를 따르게 되면 이에 장구하게 된다.” 知常容，容乃公，公乃王，王乃天，天乃道，道乃久。

변치 않고 일관되게 ‘덕’을 밝히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모두를 포용하여 함께 하게 된다. 어느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공정하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 하늘이 부여한 천성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도’를 따르게 된다. ‘도’를 따르게 되면, 나라를 오랫동안 평안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공자의 발언을 살펴보자. 특히 공자는 흐르는 냇물로 ‘상(常)’의 자세를 설명했다. 여기서 흐르는 냇물은 ‘상(常)’의 메타포가 됨을 알 수 있다.

9-16: 공자가 내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달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낮과 밤을 쉬지 않는구나.”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不舍晝夜。”

공자가 내 위에서 말씀하셨다. “시냇물이 이처럼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부단히 흐르고 있으니, 사람 역시 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상(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노회찬 역시 2012년 11월 16일 대학생언론협동조합 YeSS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변치 않는 자세(常)를 강조한 바 있다.

“초심이 흔들린 적은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올 수 없죠. 흔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달리하자면 초심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³³⁾

모르면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워서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한다. 알고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배우지 못한 것과 같다.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새로 만든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은 모든 것에 흔적을 남기니, 그 페인트칠 역시 어김없이 벗겨지거나 색이 바래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은 새 페인트로 덧칠을 해서 다시 새것처럼 할 것이고.

우리의 기억 역시 담장에 칠한 페인트와 같다. 처음 접한 한 책에서 깊은 영감을 얻고 나아가 그 내용을 기억하여 실천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기억은 담장에 칠한 페인트처럼 점점 빛이 바래고 희미해진다. 그러면 페인트로 덧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서재에서 그 책을 꺼내 들어 책장을 들춰야 한다. 마치 옛 선조들이 [도덕경]과 [논어]를 손에서 놓지 않고 반복해서 책장을 들춰며 써 마음을 다잡았듯이.

[참고문헌]

[언제나, 노회찬 어록(강상구, 2019, 루아크)]

[노회찬의 말하기(강상구, 2019, 이음)]

[대한민국을 통합시킬 주역은 누구인가?(안성재, 2020, 진성북스)]

[군자 프로젝트(안성재, 2022, 어문학사)]

33) [언제나, 노회찬 어록(강상구, 2019, 루아크)] 81~82쪽

주제 강연

현대 수사학으로 소환하는 노회찬의 말하기

이병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주제강연(3) 현대 수사학으로 소환하는 노회찬의 말하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M. 하이데거)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동안
혼자 선할 수도 없고 지성적일 수도 없다.”

(Ch. 르누비에)

하병학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1.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수사학³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인류가 개발한 국가공동체 운영방식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란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 운영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방식과는 다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이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뽑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아야 했던 군사독재 정권을 국민들이 투쟁으로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도 30년이 지났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안착되면서 역설적으로 등장한 문제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임을 저버린다는 것이다. 사사건건 불쌍사납게 싸우다가도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통과시킨다. 권력 쟁취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지역·계층·성·연령 등으로 편 가르고,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증오감, 불균형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촛불시위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리인들을 걷어내고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여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까지 실현한, 국민들의 주권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었

34) 1장은 오희영·하병학, 2021의 1장 1절 “여론 생태계와 수사학”을 이 발표문에 맞게 수정한 것임.

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은 시위, 국민청원 등으로 이어졌고, 매체의 발달과 함께 개인방송, SNS 등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제시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접속 수, 팔로우 수와 결부된 상업성으로 인해 페이크 뉴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인신공격적인 막말들이 공론의 장에서 활개를 치는 폐해도 증가하고 있다.

생각, 규범, 지향하는 이상(이데올로기)이 다르고, 이익이 충돌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통적으로 인정받아 오던 규범, 가치, 상식 등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문화·다가치의 사회, 글로벌의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장애 요소도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인할 수도, 불합리한 판단에 기인할 수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합리적인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다들 말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잘못된 의사소통이 오히려 불합리한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견이 충돌할 때 사안의 핵심 문제와 그 원인을 밝히고, 충돌하는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언론기관의 소임이지만, 현재 국내 언론기관들은 오히려 언론기관들이 자의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 자신의 언론기관에 이익이 되는 내용은 찬양하고 그 반대의 내용은 비하하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증오·혐오, 조롱, 불신을 부추기는 말들을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말은 많고 목소리는 크지만, 의견과 논리가 상투적이고 생동감과 신선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의견의 다양성은 경쟁하는 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충돌하는 두 지배 의견 외에 다른 의견들이 있음으로 인해 합의·협상의 가능성이 커지며, 지배 의견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게 한다. 반대로, 거대 양당과 그에 편승한 언론기관들이 여론의 생태계를 교란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차단하면, 중간의 목소리, 주변의 목소리, 다른 차원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보수/진보, 여/야 등처럼 서로 충돌하는 흑백논리의 목소리만, “옳소!” 아니면 “우~”라는 비난의 목소리만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국민 각 개인들은 둘 중 하나의 의견에 경색된 채, 확증편향과 편견에 지배되어 편 가르기의 희생양이자 조력자가 된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대양당제도로 인해 정치인들이 상대의 손해가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태도로 모든 사안을 대하고, 오염된 언어를 뱉고 있으니, 그 여파가 사회 곳곳에, 국민 개개인의 판단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다. 소통이 상실된 사회, 언어를 여윈 사회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는 공동체의 문제나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직접 개진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다수들의 결정에 의해 공동체적 해법을 찾아갔다. 수사학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란 폭력의 포기이자,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 협력의 시작이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수사학은 마치 삼쌍둥이처럼 공생관계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도 허언, 기만적인 말, 막말, 악행을 부추기는 말이 정직한 말, 정당한 말, 공공선을 지향하는 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도 최소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M. 마넬리는 수사학의 역할을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 · 자유 · 정의 · 평등을 추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증대”(마넬리 2006, 95)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에 대한 억압과 폄하,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억압받는 개인들 자신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들이 진부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얼마나 오도되었는지 또한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더욱 잘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이해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마넬리 2006, 96)

즉 수사학은 타자, 권력, 이데올로기, 오도된 가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개인의 지적 자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갓 설득기술을 넘어, 설득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조정하고 기만하고 지적 자유를 억압하는 현상을 밝히는 것도 수사학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말 같지 않은 말이 너무 많다. 오늘날 말의 폭력성, 기만성이 우리사회에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질만능주의에 병든 말하기에 오염되어, 말의 효능만을 지향하는 행태 때문이다. 수사학이 강조하는 화

자의 Logos, Pathos, Ethos라는 덕목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요, 말하기/글쓰기가 지닌 인격성과 사회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크로스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말한다.

“하나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어떤 주장이다.” (크로스화이트 2001, 63)

즉 수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말·주장은 문제, 사안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특히 타자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타자의 납득 없이는 모든 행위가 무가치함을 공포하는 것이요, 타자에게 동행하기를 청하는 행위이다. 달리 표현하면, 말하기/글쓰기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언어행위이고, 따라서 그들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떠맡겠다는 약속이다. 우리사회 공적 담론에서 말/글 같지 않은 말/글이 넘치는 현실은 의사소통의 이러한 특성을 무력화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2. 노회찬 말하기의 특징

노회찬 의원을 머리에 떠올리면, 많은 국민들은 먼저 상실감과 그리움을 느낄 것 같다. 그리고 그의 말이 선물했던 지적 통쾌함, 표현의 신선함, 감정의 유쾌함이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게 한다.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감,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조롱, 비하, 저주의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은 어쩌면 유일한 무기였다. “인간은 언어적, 이성적 동물이다(zoon logon echon)”, 또한 “인간은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다(zoon politikon)”라는 명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국민들의 말, 생각, 마음을 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 정치인들의 말을 분석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정치의 좌표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를 분석하기에 앞서, “말하기”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해야 하겠

다. 먼저 말과 글의 차이를 논하면, 필자는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글은 머리로 하지만, 말은 얼굴로 한다.” 즉 “문식력’이 문자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면, 언해력은 지식의 지평을 넘어 파토스와 에토스를 포함하여 ‘말로 우리 삶의 문제를 타자와 함께 풀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하병학 2012, 184, 193). 필자는 노회찬의 의사소통방식에서 말하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말하기는 글쓰기보다 속내를 드러내기 쉬우며,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말하기는 말과 다르다. 말이란 말하기를 통해 제시된 내용, 표현 등에 국한한다. 그런데 말하기란 청중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언어행위이다. 즉 노회찬의 말하기란 국민이라는 청중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그의 정치행위라는 뜻이다.

한편 그의 말하기를 특징짓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촌철살인(寸鐵殺人)”도 언급해야 하겠다. 이것은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와 정반대이다. 그는 말하기로써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죽인 적이 없다. 그의 말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촌철활민(寸鐵活民)”, 즉 “국민을 살리는 말하기”이다.

시기를 중심으로 하면, 수사학은 크게 고전 수사학, 근대 수사학, 현대 수사학으로 나뉜다. 현대 수사학은 문채론 중심의 근대 수사학에서 벗어나 1958년 Ch. 페렐만에 의해 논증행위이론, 신수사학이라는 용어로 복권되고 발달한 수사학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를 현대 수사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백수사학, 보편청중, 그리고 결합적 사고와 표현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누구나 아는 5W1H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면, “누가/누구에게”는 보편청중, “왜/무엇을”은 백수사학, 그리고 “어떻게”는 그의 표현술과 관련된다.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어떤 말은 이 셋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이 중 한두 가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셋은 서로 공존할 수 있고, 또한 생각은 표현을 통해서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대상은 강상구가 지은 『노회찬의 말하기』 (이하, 말하기)와 『언제나, 노회찬 어록』 (이하, 어록)에 실린 것들임을 밝힌다.

2.1 백수사학

민주주의,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오늘날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잘못된 의사소통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사고, 판단을 오도하고 기존의 부당한 관례들을 정당한 규범인 것으로 안착시키고는 한다. 권력·

자본·언론 결합의 위험성 등이 팽배해지면서 수사학의 오용이라는 문제점을 직시하는 새로운 수사학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S. 포스와 K. 포스는 이러한 문제가 남성 중심주의 수사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 수사학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학을 정복의 수사학, 전환의 수사학, 호의의 수사학, 조언의 수사학, 초대 수사학으로 구분한 바 있다(Foss/Foss 2003, 4~7). 또한 M. 메이에르는 기만적인 언술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수사학을 포식자의 논리, 유혹의 논리, 합의의 논리로 나누기도 하였다(메이에르 2012, 143~165).

필자가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M. 메이에르가 바르트를 빌려 제시한 흑수사학과 백수사학의 구별이다. 그는 “수사가 언어의 책략, 거짓 사고의 가면을 벗기는 데 쓰이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속임수의 대상들을 현혹하기 위해 책략과 가면들을 만들어내는 악마의 도구가 되는가”(메이에르 2012, 10) 하는 물음을 던지고, “수사학은 이러한 것들[언어의 남용, 형이상학적 사변들의 범람,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데, 수사학이 바로 이들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메이에르 2012, 11)라고 답변한다. 즉 그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효과만을 지향하는 수사에 대해 “악마의 도구”라고 표현하면서 플라톤보다 더 강한 비판을 던진다. 그는 “사람들의 조종을 목적으로 하는 용법”, “대화자를 눈멀게 하거나 혼미하게 하는 용법”을 흑수사학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사용의 과정을 밝히는 것”, “담론의 절차들에 대한 비판적이며 통찰력 있는 용법”(메이에르 2012, 47)을 백수사학이라고 부른다.

또한 백수사학은 하나의 주장, 하나의 담론이 가린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것을 넘어 여론의 거대한 권력구조의 작동방식을 드러내야 한다. 즉 민주주의 속에 감추어진 폭력적인 권력에 관한 것이다. 페렐만은 특히 권력이 숨겨놓은 폭력성을 벗겨내는 데 수사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여론 생태계가 누구에 의해 지배되고 조작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 또한 의견의 다양성이 차단됨으로써 우리사회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배권력·지배언론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학의 소임이라는 것이다.

백수사학이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를 특징짓는 데 가장 어울린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예시는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자.

“대통령 선거 불법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3선 의원이므로 형을 낮춘다. 한국 경제에 오랫동안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낮춘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한 30년 하다가 감호소 들어간 사람 재판할 때 국가 경제를 위해서 30년 동안 노동자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농사짓느라고 땀 많이 흘렸기 때문에 형을 경감한다. 이런 판결 있습니까? 없잖아요.”(말하기, 21)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허다하게 듣는다. 예컨대 재벌 출신의 어떤 출마자가 자신은 돈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돈에 대한 탐욕이 없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곤 한다. 하지만 배고픈 빈자는 짜장면에도 만족하지만, 돈맛을 본 부자는 호텔 뷔페도 불만스러워하지 않겠는가. 노회찬 의원의 말은 부당한 논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고를 지배하는 관행적 문법이 되어 버린 강자의 논리, 지배담론에 대응하는 평등과 계몽의³⁵⁾ 논리, 저항담론이다. 위의 말은 우리사회에서 무심코 당연시 하는 차별에 대한 고발이다.

“대학 등록금은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기회 균등의 문제이다.”(말하기, 151)

대학 등록금에 대해 거대 양당이 복지 확대와 세금 낭비로 논쟁할 때이다. 실제로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 다 일리가 있게 된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관점을 바꾸어 사안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한갓 복지 확대를 넘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임을,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기본권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법으로 결정 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법으로 결정 나기 전에 이승만 하야라라고 한 국민들은 (...) 무엇입니까? 그게 어떻게 다 법으로 결정이 납니까? 불이 나면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그것이 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지 누가 방화범인지까지 다 조사한 뒤에 ‘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말하기, 118)

국민들의 건강한 사유와 판단을 방해하는 기득권자들의 흑수사학 중 흔히 듣는 것이 법치주의와 관련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실증주의에 의거한 법만능주의일 뿐, 법이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의의 논리를 가리고는 한다. 예컨대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35) 칸트에 따르면 ‘계몽’이란 “우리 자신의 탓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성년에 머무는 이유는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고, “미성년으로 머무르는 것은 매우 편안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으로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책, 목사, 의사 등의 후견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과 법령 등이 지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과 민중에게 자유만 허용된다면 계몽이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칸트의 지적이다. (칸트 2009, 13~15.) 요컨대 칸트에 따르면, 우리국민들이 집단논리, 확증편향에 빠지는 것은 미성년 상태에 머무는 것이며,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지성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즉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와 언론 등에 의한 지성 통제가 있기 때문이다.

받자는 주장도 현재 평가를 피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노회찬 의원은 뻔히 범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거로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를 하려는 궤변의 부당함을 밝히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도 ‘점입해제사건’이다. 마치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 ‘박종철학업중단사건’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중복가입 불허 운운하며 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종용한 조치를 ‘중복가입해소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다.”(말하기, 143)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만을 하려는 사람은 언어를 교묘하게 바꾸고는 한다. “고용 유연성”은 실제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손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지닌 용어로 포장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언제부터 인가 덜 배운 사람, 어르신들은 알 수 없는 “GMO 식품”으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이다.³⁶⁾ 노회찬 의원은 본질을 감추는 언술, 표현의 껍질을 벗겨내고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점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끄는 프레임을 고발하는 백수사학이다.

“서방파, 양은이파만 조폭이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법, 불법을 무시로 일삼은 모든 조직화된 폭력이 조폭이다.”(말하기, 78)

우리는 조폭을 위협시 볼 뿐, 그와 유사한 짓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그 유사성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조폭, 즉 조직폭력의 한정된 정의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조폭에는 재벌뿐만 아니라, 권력을 조직적으로 남용, 오용하는 검찰, 경찰 등도 속할 수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청소할 때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말하기, 66)

위는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야당에 대한 말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직한 말보다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그럴 듯한 논리를

36) 이러한 기만적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을 호도한 대표적 사례가 독일 나치들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이다. 그들은 유대인을 “전형적인 기생충(typische Parasit)”, “해충(Schädling)”, “부패성 곰팡이(faulender Schimmel)”, “인류의 결핵균(Tuberkul)”, “인류의 변종(Abart)”이라고 표현하고 유대인의 학살을 “위생처리업무(Reinlichkeitsangelegenheit)”로 유대인을 이 세계에서 모조리 없애는 절멸을 “최종해결(Endlösung)”로 표현함으로써 독일 국민들이 홀로코스트에 동조 또는 침묵의 동의를 하게 했던 것이다.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익, 자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들먹이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논증을 펼치는 ‘가면(마스켓) 논증’이라 부른다. 예컨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 야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해야 한다." 이 말은 겉으로는 ‘국민들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겨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겉으로는 흡연을 줄여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논거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담뱃세 인상이 국가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면서도 반론을 막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무슨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까? 강북에다가 루이비통 명품관을 지어 놓으면, 강남·북 격차가 해소됩니까? 강남·북 부자들의 격차를 해소해줄지는 몰라도 강남·북 격차를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어록, 102)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인가. 하나고등학교는 강북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인가? 공교육의 질을 균질화하고, 서울 내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대입 전형제도를 고민하지는 않는 정치인들이나 내뱉을 수 있는 교언영색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말은 옳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입이 다섯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걸 그는 알아야 한다.”(말하기, 130)

삼성불법로비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재벌그룹, 정치권, 언론사, 국가권력기관의 검은 커넥션의 문제를 ‘도청사건’으로 호도하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가 사건이 터지자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에 대한 노의원의 마찬가지로 논증이다.

“그럼 그 당은 뭐니까? 그 당은 한국에서 후보 못 내야지.”(말하기, 138)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사건 후 “민주당은 충남도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한 노회찬의 말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이다. 거대 양당 중 어느 하나는 선이고 어느 하나는 악이라는 흑백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상대방만 비판하면 마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한 것 같은

위선을 지적하면서 둘이 오십보백보, 별 차이가 없음을 밝히는 말이다.

“(심상정 사표론은) 마치 저희가 듣기에는 이마트 사장이 동네 슈퍼는 다음에 팔아줘라... 민주당 밥 상에는 거위 간도 있고 돼지 간도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왜 벼룩 간까지 먹으려 하는지.”(어록, 352~353)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행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이다. 거기에 부속된 논리가 ‘사표론’이다. 정권 유지/교체를 위해 제3당, 소수 정당은 밀어주기를 해야 한다고, 소수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 국민을 겁박을 하고, 선거에서 패한 경우 그 원인으로 몰아붙이는 부도덕한 논리이다. 마치 GMO 식품, 가짜 고기를 만드는 재벌기업이 국가경제를 위해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유기농 식품, 진짜 고기를 팔지 말라는 것과 같다.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논리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있다.

2.2. 보편청중

수사학에서 청중은 핵심요소이다. 페렐만의 신수사학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모든 논증 행위는 청중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증 행위의 출발점인 전제에서부터 논증 구성요소들의 결합과 결론으로의 진행까지 청중의 수용이 요구된다.

그런데 청중이란 누구인가? 청중은 눈앞의 어떤 개인일 수도, 화자가 상정하는 일부 사람만일 수도, 화자가 지향하는 눈앞에 없는 사람일 수도, 화자는 지향하지 않았을지라도 화자의 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일 수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후손들일 수도,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페렐만은 우선 청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청중이란 화자가 자신의 논증행위를 통해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총체이다.”(Perelman/Olbrechts-Tyteca 2004, 25)

청중이란 화자가 영향을 주려는 자라는 점에서 화자의 태도와 말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화자가 청중의 구미에 맞게 아첨하듯 청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청중이 논증행위의 질에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증들의 가치(질)는 그것을 인정하는 청중의 가치(질)에 상응하여 결정된다.”(Perelman/Olbrechts-Tyteca 2004, 455)

청중의 동의로부터 독립된 논증의 타당성이란 없다. 그렇다면 청중의 다수/소수 여부가 논증의 타당성을 결정한다는 말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페렐만은 세 유형의 청중, 즉 보편청중, 특정청중, 모범청중을 제시한다.

특정청중이란 가능한 청중들 중 일부만을 뜻한다. 예컨대 자신의 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경우이다. 모범청중이란 타당한 논증을 수용하는 전문성을 가진 특수청중을 말한다. 모범청중을 지향하는 태도의 문제점은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사람들을 어리석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페렐만 신수사학에서 핵심은 보편청중이다. 그에 따르면 보편청중이란 “모든 인간, 또는 적어도 성인이자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인데, 이에 대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논증들은 청중에게 의존하여 성공적으로 고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본성은 논증행위들의 관점에서나 그 형태의 특징들과 그 미래의 영역에서나 중대한 범위에서 결정적이다. 그렇다면 논증행위의 혁신적인 본질 특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규범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청중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Perelman/Olbrechts-Tyteca 2004, 40)

이 물음은 특정한 다수의 동의만을 얻으려는 논증행위를 넘어 논증행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성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수청중을 지향하는 논증행위의 단점은 단지 그 청중들에게만 수용될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 정당들 간의 의회 논쟁이나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그 사례이다.

J. 크로스화이트는 보편청중의 개념을 통해 수사학이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보편청중을 향한 열망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도덕적 명령과, ‘모든 사람’의 청중을 인식하겠다는 희망에 대한 인식이다.”(크로스화이트 2001, 196)

‘보편청중’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망의 표현이자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요컨대 시간적으로 유한하고 공간적으로 모든 타자의 삶의 방식을 체험하기 힘든 인간존재자가 자신의 지적 한계에 대해 겸허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타자의 삶의 개입을 윤리적으로 용인하고, 그 누구와도 소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실천적인 약속을 하고, 아직 내가 상정하지 못했을지 모를 타자로 나아가는 계기라는 것이다.

이제 노회찬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탓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민 탓을 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말하기, 34)

“예우를 받지 못한 것은 그[권력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위대한 국민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어록, 96)

필자가 노회찬 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그의 말하기 특성에 대해 느낀 바를 알려주려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당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말하는 것이 특성이다.” “아니요.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 “당신이 국민을 탓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 그 말씀만은 받들고 싶습니다.” 어떤 정치인, 지식인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의원이 되었을 때,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같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을 탓하고는 한다. 그 밑바닥에 교묘하게 작동하는 거대권력의 술수는 간과한 채 말이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활동하고 잘 말하면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리고 혹 국민이 자신과 자당에게 불리한, 매정한 선택을 했을 때도 오히려 그 이유를 알아내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 누구도 설득할 필요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곧 진리이니, 논증이 아니라 단언을 하였던 것이다. 국민에 대한, 청중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 테러 진압 부대에 배속되었다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살인 진압 명령에 강제 동원되어 그 참사 과정에서 함께 운명하신 특공대원 고 김남훈씨, 돌아가신 열사들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옥탑방에서 기거하며 특공대원 생활을 하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김남훈 씨를 만나시거랑 위로해주소서.”(말하기, 18~19)

많은 정치인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여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오히려 불합리한 반민주적인 정치, 국가운영에 의해 사망한 모든 사람을 같은 희생자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자신의 청중으로 삼고 있다.

“거꾸로 묻고 싶은데, 왜 자유한국당에는 친박·비박만 있느냐, 친국민은 왜 없습니까? 보수는 원래 반국민입니까? 보수는 비국민입니까? 보수도 친국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박·비박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친박도 아니야, 비박도 아니야, 나는 친국민이야...”(어록, 130)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택한 국민보다 공천을 한 권력자나 공천을 하지 않을 권력자를 기준으로 패싸움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다. 그들은 국민들을 표를 주는 사람으로, 즉 자신의 선출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을 목적으로 대한다. 권력을 누리고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권력을 누리기 위해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다시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을 탐하지 말고 사회봉사, 재능기부 등으로 사회에 봉사하면 된다.

“386이라는 말 속에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1960년대에 태어난 30대 중에는 8(1980년대 학번)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에 못 가고 고교 졸업 후 노동자로 취업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을 ‘306세대’라 부른다.”(말하기, 152)

우리는 우리사회에 통용되는 차별의 언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부류의 사람들, 소외자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한 무의식적 차별의 언어를 꼬집어낸다.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음식을 먹는 거 누가 탓합니까. 그런데 옆에서는 굶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갈비 뜯어도 됩니까? 암소갈비 뜯는 사람들 불고기 먹으라 이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라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어록, 98)

“날이 추우면 몸이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진 게 적은 사람부터 고통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어록, 104)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 중 한 분에게 여쭙보니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말에 특근까지 해야만 140만 원 조금 넘는 액수를 수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 (어록, 237)

가진 자가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한 한국사회에서 ‘내 돈, 내 마음대로’라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노회찬 의원은 양극화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한편 선출직은 선출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넘어서면 위험하다. 공간을 맡은 집사가 주인집 돈을 털고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편청중에 대한 한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보편청중이 모든 국민을 지칭한다면, 국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의 공정성 제1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제2원칙은 여건이 가장 불리한 약자가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익과 의견이 충돌할 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청중에 대한 지향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회찬 의원은 항상 보편청중을 지향했다고 말할 수 있다.

2.3 노회찬 의원의 대표적인 표현술

Ch. 페렐만에 따르면 논증에는 크게 결합 논증과 분리 논증이 있다. 그리고 결합 논증에는 다시 유사 형식논증, 실재 구조에 의거한 논증[예: 원인+결과...], 실재 구조를 세우는 논증[예: 유비논증...]으로 나뉜다(Perelman 1980, 55 ~ 129). 노회찬 의원의 말에서는 이 셋 모두 발견된다.

1) 유사 형식논증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예술 시설을 짓는다며 4500억을 들이면서, 월급 70만원씩 주던 오페라 합창단을 집단해고하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문화입니까”(말하기, 241)

어떤 공동체이든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립하며, 특히 민주사회에서 신뢰란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만적인 말은 위조지폐나 다름없다. 아니, 국민들을 오펜으로 이끌고 다시 그 오펜이 다른 오펜을 낳게 한다는 점에서 중독성을 지닌 마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지 모른다. 노회찬 의원의 말은 유사 모순 논증이다. 한 입에서 두 말을 하거나, 말과 행위가 불일치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논증이다.

“방금 YTN 전화 인터뷰하는데 광화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세우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네

요.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조건부 찬성이라 답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문길래 광화문 지하 100미터에 묻는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어록, 151)

지상의 동상이 기념의 성격인 반면, 100미터 지하의 동상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건부 긍정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실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 전건이 거짓이면 그 논증은 언제나 참이기 때문이다. 전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함으로써 청중에게 유쾌한 반전을 선사하고 있다.

2) 실재 구조에 의거한 논증

“불행한 것은 재벌 3세이다. 이견희 회장이 2008년 특검에서 구속되었더라면 정경유착의 3대 세습은 근절되었을 것이며, 박영수 특검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일은 없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말하기, 149)

현재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과거의 유사한 사건을 제시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결합 논증이다.

3) 실재 구조를 세우는 논증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표현법이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서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사고하는, 대단히 창의적인 방식이다.³⁷⁾

“파리끈끈이 같은 거죠. 거기 모인 거, 나중에 그것만 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중략) 분리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지금 봅니다.”(어록, 212)

이 말은 박근혜 씨가 탄핵 당한 후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씨 집에 모이는 것을 빗대어 탄핵 정당에서 반성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는 의원이 오히려 구별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빗대어 한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서민들의 생활세계에 내려와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비유이다.

37) 이러한 유사성을 통한 사고를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예컨대 그는 사람의 육체와 건축물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낡은 건축물을 병든 생명체에, 건축가인 자신을 노련한 의사에 비유하였다. (카프라 2011, 130)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어록, 259)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민의가 없는 거죠, 자의만 있는 거죠.”(어록, 117)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방송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있다면 하나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나머지는 종합편성이 아니라 종일 편파방송하는 종편이 된 거죠.”(어록, 157)

“KTX가 코리아 택시입니까?”(어록, 191)

노회찬 의원의 말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표현술은 대조법이다. 우리사회에 명목과 실재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고, 그 부조리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사음을 활용하여 신선함까지 선사한다.

4) 위트를 발휘하는 말

“법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를 수백 통 했다는 얘기는 주로 판결에 관련된 게 아니겠어요? 법원에 비가 섰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록, 266)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공약집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제 애독서예요.(웃음) 한 권밖에 없는데 두 권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왜냐면, 본인이 안 읽어본 것 같아요.(웃음) 이 책을 다시 찍는다면 제목을 바꿔야 해요. <약속을 바꾸는 세상>.(폭소)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총선 공약으로) 해서. 진짜 진박이 누구냐?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노회찬 진박 선언(폭소).” (어록, 146 ~ 147)

“(“국회가 지금 뭘 하는지 국민이 잘 모릅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저도 잘 모릅니다. 건물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록, 117)

노회찬 의원의 말을 듣기를 국민들이 즐겼던 이유는 아마도 유쾌·상쾌·통쾌함 때문일 것 같다. 진지한 내용에도,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노회찬 의원은 위트를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웃음으로 느끼게 하였다.

5) 기존 표현술로는 설명이 힘든 표현

표현술은 형식 논리학, 수학 등과는 달리 비체계적이다. 인간은 문화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언어감각에 따라 창의적으로, 새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의 일반적인 표현술로는 설명하기 힘든 표현이 언어의 마술사 노회찬 의원에게서 종종 발견된다.

“이 사건으로 죽은 72세의 이상민 씨는 그래서 세계 최고령 테러리스트가 된 셈이고.” (말하기, 91)

이 말은 용산 참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작전이 정당하다고 말했을 것에 대한 대응의 말이다. 노회찬의 말은 검찰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그 결과는 터무니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의 판단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일종의 귀류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피해 노인이 폭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실을 근거로 그를 가해자로 몬 검찰 판단이 오류임을 밝히는 말이다.

“GMO는 하나의 식품이잖아요. GMO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GMO에서 뭔가를 추출해서 쓰면 (...) 표시제와 무관한 식품이 돼 버렸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성분도 포함시켜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고시안을 제출했는데, 2008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지당했어요.” “유시민: 규제개혁위원회가 뭐하는 거야.” “유전자 변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곳이에요.” (말하기, 106)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의 편의만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유전자 변형이 요구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설명하기 어렵는데, 굳이 말하면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유전자 변형은 부정적이고 개혁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짓이 부정적이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오히려 환골탈태라는 의미의 유전자 변형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마무리 하며....

이제 이 발표를 마무리할 때이다. 노회찬 의원은 참 좋은 말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서 필자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을 꼽으라면, 다음의 말을 선택할 것 같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가 언젠가 했던 말이에요.”(말하기, 7)

우리는 당신이 말을 참 잘 한다고 말에 머물러 칭찬하지만, 그는 오히려 국민들이 던

진 말들을 귀담아 들어 말의 창고에 저장해 두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국민들의 말을 충실히 전달한, 겸손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국민들의 생각, 고통, 슬픔, 모멸감, 즐거움, 희망 등 귀한 것이 담겨 있다. 말은 한갓 화술이 아니라, 화자의 인품, 삶의 방식, 세계관·사회관의 거울이다. 노회찬의 말은 그의 정치이었고, 삶이었고, 꿈이었다.

학문을 탐구하는 필자도 정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지성인이다. 노회찬 의원이 갑자기 우리를 떠난 뒤, 필자와 마찬가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안도감을 가졌던 길잡이를 잃은 느낌을 가진 국민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좌절해야 하는가? 이를 염려하여 그는 많은 지혜의 주머니를 남겨 놓았다. 그 중 필자에게 눈에 띄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담벼락에 어린아이 키만 한 붉은 글씨로 ‘사랑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간첩이다’라고 써놓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다.”(어록, 217)

“아침에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눈을 뜨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절반입니다. 지금 대학 졸업한 청년 10명 중 3명은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없습니다. 내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는, 자가용 몰고 출근하는 분들 중의 절반은 비정규직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는 대한민국,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말하기, 242~243)

첫째, 낯을 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를 위한 지혜이다. 노회찬 의원은 일반 사람들이 놓치는 불합리한 현상들을 참 잘 발견한다. 우리사회의 곳곳, 소외자·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공감하며 다가가 불합리·불평등·반인권의 현상들을 찾아내고, 그 밑에서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치열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연대하고 실천해야 한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당장 알 수 없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라.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어록, 83)

둘째,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지혜이다. 아마도 길잡이를 잃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의당의 당직자들, 구성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땀과 눈물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입니다.’”(어록, 115)

셋째, 초심을 잃었을 때, 길의 방향을 잃었을 때를 위한 지혜이다. 오늘 발표를 노회찬 의원이 듣고 있다면, 아마도 이 말을 꼭 언급해 달라고 조를 것 같다. 그곳이 바로 그가 기거했던 곳이고,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부탁할 것 같기 때문이다. 어디 지혜의 주머니가 이 세 가지뿐이겠는가. 그는 갔어도, 우리가 길잡이로 삼을 많은 말을 남기고 갔다. 그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남은 자의 몫이다.

어디선가 조용히 첼로 소리가 들린다.....

[참고문헌]

- 강상구, 『언제나, 노회찬 어록』, 루아크, 2019.
- 강상구, 『노회찬의 말하기』, 이음, 2019.
- 마넬리, M.(2006), 『페렐만의 수사학』, 손장권/김상희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 메이에르, M.(2012), 『수사 문제』, 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 오희영·하병학(2021), 「국민청원, 소환과 참여의 수사학」, 『수사학』, 40집, 한국수사학회.
- 카프라, F.(2011), 『다빈치처럼 과학하라』, 강주헌 옮김, 김영사.
- 칸트, I.(2009),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 철학』, 이한구 편역, 서광사.
- 크로스화이트, J.(2001), 『이성의 수사학』, 오형엽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 하병학(2012), 「언해력(Orality)과 말의 지평」, 『수사학』, 17집, 한국수사학회.
- Foss, Sonja K./Foss, Karen A.(2003),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ing World, Waveland.
- Perelman, Ch.(1980), Das Reiche der Rhetorik. Rhetorik und Argumentation, Übertragen von E. Wittig, München, (Originalausgabe 1977).
- Perelman, Ch./Olbrechts-Tyteca, L.(2004), Die neue Rhetorik, Kopperschmidt, J.(Hrsg.), problemata frommann-holzboog, Stuttgart-Bad Cannstatt, (Originalausgabe 1958).

패널
토론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패널토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발표자 김현 교수는 고전 수사학의 두 전통(다른 하나는 로마 공화정의 수사학이다) 가운데 고르기아스에서 프로타고라스, 이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수사학의 전통을 잘 소개하고 있다. 발표문의 논지에 동의하고 따르면서 고전 수사학의 지혜를 통해 정치인 노회찬의 말이 갖는 힘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고르기아스는 문학과 시적 환상을 자유롭게 구사한 것으로 유명한 ‘감정의 수사학자’였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수사학만이 아니라 시와 문학을 비난했다. 하지만 인간은 철학보다 시나 문학을 더 많이 읽는다. 참된 진리를 찾는 노력보다 공감을 갖게 하는 글을 즐겨 찾는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은 주관적으로 다르고 진리는 상대적이기에, 말과 연설로써 공적인 결정을 이끌려 한다면 그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을 강조했다. 인간의 자각적 결정 외부에서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철학적 인식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프로타고라스는 저항했다. 플라톤이 지향했던 ‘철학의 전제정’에 대한 수사학의 반격은 이소크라테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사학을 속임수라고 본 플라톤과는 달리, 수사학이야말로 인간의 덕성을 증시하고 인격 형성에서 철학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수사학에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 미학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으며, 그것은 곧 대중에 대한 아첨이나 아부가 아니라 ‘정치적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고 여겼다. ‘정치적이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언은 철학이 아니라 수사학의 전통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정치인 노회찬은 바로 그 사실을 자신의 말로 실증했다고,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

2) 수사학은 ‘설득의 능력’을 키우는 기술이다.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과 달리 ‘의견의 문제’를 다룬다. 의견은 기본적으로 ‘개연성’에 기초를 둔다.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입증보다는 일반적 개연성이 수사학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점에서 논

리학과도 구분된다. 논리학이 ‘엄격한 인과적 논증’을 다룬다면, 수사학은 낱말들을 가지고 청중들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실보다는 ‘진실 같은 것’,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 공감’과 ‘동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수사학에서는 더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수사학은 듣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과학적 논증의 절차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주관적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은 완벽한 논리적 전제가 확보되어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확실한 과학적 증명을 거쳐야만 행동할 수 있다면 인간 사회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행동한다. 희망의 여지만 있어도 행동에 나서는 게 인간이다. 확고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때라도 신뢰와 믿음만 있으면 움직이는 게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철학보다 수사학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것은 틀림없다. 노회찬이 한때 혁명을 꿈꿨고 민주화 이후 그 꿈을 정치에서 찾은 것은 과학적인 판단이나 진리의 발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보통의 시민들 사이에서 더 넓고 깊은 신뢰와 가능성을 조직하기 위해서였다고, 본 토론자는 믿는다.

3) 정치인의 말이 가장 윤리적인 인간 행위여야함을 강조한 것도 그리스 수사학이다. 설득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광고나 선전도 설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다못해 고문이나 취조도 특정의 의견을 인정하게 하는 설득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목회자의 설교나 학자들의 논문 또한 설득의 방법을 배제하고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진실과 진리만을 말하면 될 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누군가 목적의 순수함만 추구할 뿐 그에 적절한 수단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옳기 위해서만’ 행위를 할 뿐 독자나 회중, 청중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수사학은 말로 세상을 기만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수사학은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상호적이고 또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인 것과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연설의 목적에 대한 헌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듣는 청중이 그에게서 신뢰와 권위를 느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상황을 개선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적 과업에 대한 자각이 없는 정치가와는 수사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정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전제 위에서만 수사학은 가치를 갖는다. 정치인 노회찬과 수사학의 가치에 대해 논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더 아쉽게 만든다.

4) 그리스 수사학의 전통을 당당한 학문의 반열로 올려놓은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의 스승인 플라톤이 진정한 기예는 진리의 탐구를 통해 이루어질 뿐 낱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을 실현하는 것은 수사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보았기에 참된 진리를 이해하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지식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보다는 수사학이 더 고결한 정치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견을 ‘진리의 왜곡된 그림자’로 본 플라톤과는 달리, 의견이야말로 ‘진리의 진정한 형상’이라 생각했다. 어휘와 낱말 선택의 순간에 윤리적 전제들과 함께 정치적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만큼 강조한 사람도 드물다. 그런 기초 위에서 쉽게 읽히고 정확히 발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표현 형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은유와 운율, 목소리와 몸짓, 암기술(暗記術)을 수사학 요소의 하나로 평가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인간이 천사가 아니라고 해서 악마는 아니다. 악한 사람도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치를 버릴 수는 없다. 그렇듯이 정치인들의 수사들 가운데 헛된 주장이 많다고 해서 수사학을 버리자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어떻게든 정치 언어를 좋게 만들고 수사학을 선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노회찬의 말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다른 정치가들에게 인용되고 언급되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될 오늘의 자리는 의미 있다.

5) 목적의 윤리성을 전제하지 않는 수사학을 옹호할 수는 없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도 특정 상황에 맞게 설득의 수단을 찾아내는 능력은 길러야 한다. 그런 능력을 키우려 노력하는 데 수사학의 가치가 있다. 말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말로 편익을 추구하고 상대를 기만하는 것까지 수사학의 가치에 포함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수사학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지, 수사학을 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다. ‘정치가다움’이 없다면 정치가의 말이 가치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대의나 소명감, 책임성을 갖지 않는 정치가라면 그에게는 수사학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가치 없는 일이 된다. 정치나 정치적 말의 힘을 악용하는 일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수사학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정치인 노회찬의 정치가 다 옳았던 것은 아니고, 그의 말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정치보다는 진보 정치 전체를 위한 역할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했다. 자신을 과시하지만은 않았고, 그보다는 좀 더 나은 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머가 있었는데, 그의 유머는 서로 생각을 달

리하는 시민과 동료 정치인을 웃게 만들 가장 인간적인 무기였다. 웃음이 사라진 민주주의, 찢기도 온기도 없이 비열함만 가득 담은 정치 언어들, 좌표 찍고 욕설 내뿜고 문자폭탄 보내는 것을 시민참여라 착각하는 극렬 지지자들, 조롱과 모욕주기에 익숙한 정당 내 과당집단들 속에서 노회찬의 없음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는 가끔이라도 웃을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다.

팬덤정치, 혐오정치,
그리고 노회찬의 말하기

이대근 우석대학교

패널토론 팬덤정치, 혐오정치, 그리고 노회찬의 말하기

이대근 우석대학교

한국 정치가 양당제에 기반한 정치적 양극화, 대결정치, 감정적 양극화, 혐오정치, 팬덤 정치에 의한 사생결단의 정치, 심지어 정치 홀리건 현상으로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노회찬의 정치 언어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의미 있다고 판단됨.

□ 노자, 공자, 노회찬의 수사에 대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했던 이들의 말이 2,500년의 시공을 넘어 공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음. 어떻게 공동체가 번영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할지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부딪치는 정치 문제의 해결은 수 천년 간 모색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난제 중 난제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했음.

조화로움, 균형, 다양성 등 인간 공동체의 덕을 찾는 일은, 특정 위인의 말을 통해 발견되기보다,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지혜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도 노자, 공자, 노회찬의 말을 통해 잘 드러났음. 노자, 맹자도 새로운 사상이나 가치관을 창조한 인물이 아닌, 기억을 전달해주는 이의 역할을 한 것처럼, 과거 기억 전달자가 오늘의 기억 전달자 노회찬에게 기억을 전달하고, 노회찬이 다시 기억을 정치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는 인상적이었음.

발표자는, 노회찬은 자신의 말이 자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누군가 했던 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회찬의 말하기가 새로운 논리와 이론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배달증명’이라는 노회찬의 정치 개념은 주목할 만함. 발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청자에게 전달되어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노회

찬이 인식했고, 이는 곧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로서의 수사학을 넘어 말의 효용, 실천을 중시했음을 말해줌.

노자, 공자는 정치적 책임성이 없는, 정치 평론가, 경세가였다면, 노회찬은 정치 현실에 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치 평론가이면서도 정치인이기도 했음. 즉 소수당 정치인으로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였음. 반면 노자, 공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노회찬의 말과 차이는 없는가?

발표자는 공자의 ‘산을 만드는 삼태기’ 일화와 노회찬의 “어떤 경우에도 국민 탓을 하지 않겠다” 발언을 통해 공자와 노회찬이 모두 실천과 ‘내 탓이오’의 두 가지 덕목을 중시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았음. 그러나 공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개인의 윤리적 덕목을 강조했다면, 노회찬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덕목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일상이 바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의 흐름이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하고,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 윤리에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음.

공자왈, 맹자왈이 상징하는 것처럼 노자, 공자의 말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발언의 맥락이 오늘날과도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2, 500년 전의 말이 노회찬의 말과 비교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

□ 다시 주목하는 노회찬의 정치언어

○ 정치 행위로서의 말하기

정치 행위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짐. 갈등을 조직하고, 완화하며, 설득과 동의를 추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언어로 인해 가능한 것.

정치적 행위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고, 통제되고, 기술되고, 정당화되고, 평가받고, 비판받는다면, 정치적 행위는 의사소통을 필요로 함. 그런데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

므로 정치적 행위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정치적 행위는 기호나 신호, 상징의 교환 없이는 불가능함(김종수, “독일 신문에 투영된 정치언어의 은유”, 2018).

그러나 모두가 정치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아님. 권력을 가진 이들은 정치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만, 권력이 없는 이들은 그럴 능력과 기회를 결여하고 있으며, 바로 그런 차이가 권력의 소유 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약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한국 기득권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언어는 강자의 도구일 뿐 아니라, 약자의 도구이기도 함. 노회찬 같은 이가 목소리 없는 사람을 대신 해 발언하며 약자의 도구로서 정치언어를 구사했음.

권력이 없는 이가 말이 많다면, 권력을 가진 이는 말이 적음. 조지 W. 부시는 “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에 대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 내게 길게 설명해야 한다.”

○ 오염된 정치언어

근래 정치언어는 더 이상 ‘말을 같고 닮는’ 수사학이 무색하게 상대에게 단순히 호오의 감정을 전하는 원시언어로 회귀 중. 노회찬의 촛불살인, 향기 있는 비유, 재치, 풍자, 논리적 설득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짐.

주요 정치 지도자가 상대 후보를 향해 ‘범죄자’ ‘쓰레기’ ‘토착왜구’로 낙인찍고, 극성 지지자들은 ‘떡검’ ‘기레기’와 같은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

욕설, 막말이 정치 언어로 승격되면서 정치 언어는 더 이상 의사소통의 수단도 아니고, 설득과 동의를 위한 것도 아닌 자기 감정의 배설로 끝나고 있음.

□ 정치 팬덤에서 정치 홀리건으로

○ 정치 팬덤의 등장과 변화

문화 팬덤/ 대중 예술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집단행동하고 스타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문화주체를 문화 팬덤이라고 젠킨스(Henry Jenkins)는 정의했음. 젠킨스는 문화 팬덤을 소극적, 무익한 무리로 간주하던 부정적 인식을 비판하고 오히려 생산적, 참여적, 능동적인 문화 수용자로서 현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프로슈모로 개념화.

정치 팬덤의 등장/ 문화 팬덤을 모방한 정치 팬덤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정치팬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열렬 지지자로, 해당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연예인 팬처럼 활동하는 집단을 의미. 정치인이 지지자 확보와 동원을 위해 연예인처럼 행동한 결과임(오현철, “문재인 정치 팬덤의 복합적 성격”, 2021).

○ 정치 훌리건 현상(political hooliganism)

정치 팬덤이 점차 스포츠 팬덤으로 변화/ ‘상대 팀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자기 팀을 지키기 위한 사랑’으로 치부되며 적대와 공격을 당연시 함.

정치적 절망의 표현일 수도 있음. 특정 인물의 카리스마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려는 왜곡된 욕망의 결과.

○ 정치 팬덤의 특징

대중은 논리, 이념, 정책보다 감성적 요인이 좌우하는 이미지에 따라 정치 셀럽에게 매료됨. 정치인과 정당이 대중을 상대로 정치인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중은 그런 것 보다는 감성적 연결에 더 끌림(Marshall 2014). 감성은 무의식적인 감정 기억들에 붙어 사람들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팬덤 내부에서 전염되고 증폭됨(오현철, 2021).

정치 셀럽에 의한 ‘페르소나’(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 구성.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상반되는 이미지 파편을 합성하여 형성됨(Anderson and Sheeler 2014).

노사모에 이은 문재인 정치 팬덤은 한국 정치 팬덤의 한 전형을 보여줌. 문재인 지지 성원으로부터 시작해 문재인 방어 활동 중심으로 전환. 문 대통령 비판하는 이는 누

구나 가리지 않고 집단적 공격.

정치 팬덤과 정치 팬덤의 경쟁이 정당 경쟁을 대체.

정치 실력 중심 정치, 인물 중심의 사인화된 정치. 이념, 노선, 정책이 아닌 개인적 매력, 카리스마가 지배하며 이념, 정책, 정당은 선택의 준거로 작용하지 않음.

당의 집권을 목표로 한 공동의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음. 같은 정당, 같은 노선의 정치인이라도 팬덤의 경쟁자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됨.

대신, 정치팬덤은 정치 셀럽을 중심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낌. 오한철, 따라서 정치팬덤에 의한 정치의 개인화는 정당, 정부, 국회 등 국가제도 중심의 정치를 셀럽 중심 정치로 전환되고, 정당이 정치팬덤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계급, 성, 언어, 종교, 민족, 인종 같은 사회적 균열도 반영하지 않음(오한철, 2021).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 정치 팬덤은 내집단 일체감, 외집단 적대감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강화함.

□ 정치 팬덤이 부추기는 혐오 정치와 그 배경

○ 당파적 양극화에서 감정적 양극화

정당 지지자 중심으로 진영 대결이 이제는 막연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정치로 변질. 상대가 싫어서 투표하는, 적대적 감정에 의한 정치로 변화.

인간의 편들기 본능만 살아 있는 정치. 인간은 협력의 본능도 있지만, 정치의 실패는 분열과 대립의 편들기 성향만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오늘 한국 정치의 현실에 그대로 투영됨.

○ 양극화의 특징

양극화는 '사생결단의 정치'를 불러냄.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 지지자들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정치적 확장을 위해 설득과 동의를 위한 정치언어를 구사하고, 공감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말을 다듬고 듣기 좋게 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양극화 시대 정치언어는 설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파간다를 위한 것. 과격한 언어를 찾고 공격적인 표현, 갈등 유발적 언어를 구사하고 낙인찍기 언어로 주목받으려 함.

그리고 감정적 집단을 더욱 공고하게 결집하기 위해 공격적 언어,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음. 이런 조건에서는 다원적 경쟁이 불가능.

정치적 양극화는 그 정치적 동원효과 때문에 정치참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혐오정치라는 극단적 양상으로 발전하면 냉소주의, 반정치로 인한 정치적 탈출 현상이 나타남.

패션
트렌드

김기영 정의당

패널토론

김가영 정의당

토론에 앞서, 토론자인 나는 선거를 경험한 전과 후로 나뉘며, 토론문의 내 생각은 선거 전후로 크게 바뀐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담고 있음을 미리 알린다. 선거의 주인공인 후보로 8개월 넘는 시간을 살면서 나의 머릿속에는 정치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으로 점철되었다. 그 결과는 노회찬의 말하기에서 답을 찾자 했던 맥락과도 닿아있으며, 토론문은 발제문을 분석한 글이자 동시에 선거 후로 달라진 나의 고백서이기도 함을 밝힌다.

○ 노회찬의 정치에 민생이 아닌 것도, 정치가 아닌 것도 없다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는 중에 권성동 국힘 원대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민주당 박홍근 원대로부터 “공항 체크인할 때가 아니라 민생,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후 최근 권성동 원대는 “민주당이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어 사개특위 거래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에게 정치 현안이 민생과 대척점에 있는 듯이 설명하며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매한가지이다.

정치인들이 ‘이럴 때가 아니라 장보기 물가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상대를 호통 칠 때는 보통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무엇이 민생이고,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은 어디에 있다. 우리는 민생이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은행 기준금리나 기업 투자와 같은 경제 사안을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어려워니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을 한다.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가 여타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는 정치, 경제와 민생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권력이 민생을 거론하며 사실은 은폐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청자에게 그려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다.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짓는다며 4500억 들이면서, 월급 70만 원씩 주던 오페라 합창단을 집단해고하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문화입니까.”

여기서 ‘누구’는 결국 모든 약자, 국민이 된다. 또 ‘그 무엇’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

니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발제자의 논의처럼 이 말은 유사 형식 논증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대표적인 표현 기술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권력의 폐쇄성을 고발하는 백수사학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못 본 척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은 기득권에 정치 현안이 아니라서 그리 쉬웠을까.

많은 이들이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하고 상상하고는 한다. 노르가즘이라 불리웠던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단순히 통쾌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그 권력의 한 꺼풀을 시원히 벗겨 내주는 정치인의 등장이 그만큼 절실해서가 아닐까.

○ 노회찬, 당사자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한다’

최근 정의당의 선거 결과를 두고 당이 처한 현실을 비판하는 대부분 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 곁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이 비슷한 맥락의 말을 주저 없이 꺼낸다. 그러나 이 말은 정치인의 입을 떠나는 순간부터 발화자 자신은 힘없는 이, 사회적 약자와 같은 편에 있지 않았음을 청자에게 확인하게 만든다.

그 유명한 2012년 진보정의당 당 대표 수락연설문에서 6411번 버스 새벽 첫차의 노동자를 호명할 때도 노회찬은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이라 하지 않았다. 유시민도, 심상정도, 노회찬도 모른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간을 찾고 함께했을 뿐, 그들이 약자 당사자임을 짚어내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사회 구성원도 정치인으로부터 자신이 차별받는 약자임을 ‘가르침’ 받고 싶지는 않다. 이들은 정치인이 가르칠 대상도 아닐뿐더러, ‘힘없는 존재’도 아니다. 시민이 왜 힘이 없는가, 아직 조직된 힘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

선거에 임하며 곁에 계시지 않은 노회찬 의원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내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치를 한답시고, 당사자에게 ‘성차별 받는 현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고 화를 낸 동안 노회찬 의원님의 행보는 전혀 달랐음을 떠올렸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국회 여성 청소노동자에게 본인의 의원실을 내어주고,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직접 장미를 전하셨던 정치인의 모습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

아들여졌을까.

가장 낮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노회찬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청자에게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정작 ‘가난하고 힘없는’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말들의 향연 속에 노회찬의 수사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열망으로 보편청중을 향하기에 다를 수 있었다. 발제자도 보편청중의 지칭이 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울 때, 롤스의 정의론 제2원칙, 이익과 의견이 충돌할 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청중에 대한 지향이라는 점을 짚고 있다.

○ 국민의 눈은 정치인의 입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정치에 임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노회찬 의원이 했던 이 말을 되새겼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공직 출마를 결심하고 처음 떠올렸던 것이 아래의 말이다.

“처음 정치 시작할 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탓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 국민 탓을 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어떤 정치 신인에게는 가식적인 정치꾼이 되지 않고자 스스로 다독이는 의지의 표현이거나, 중견 정치인이 정치적인 담보 상황에 돌파구로 찾는 레토릭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출마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회찬의 명문장은 수사가 아닌 현실이었다. 유권자는 후보인 나와 나를 필두로 하는 조직에 대해 개개인의 능력부터 도덕성, 향후 집권이 가능한 권력인지 첫눈에 파악한다. 선거 내내 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일에 나선 것에 낮이 뜨거웠다.

발제자가 정치권에서 자신, 자당의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국민을 들먹이는 경우를 ‘가면 논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이것이 가면일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추정하는 것보다 국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치와 권력의 저의를 눈치채기 때문이다. 노회찬은 말은 정치꾼들의 가면을 벗겨냈고, 본인의 행보를 통해서 가면을 쓰지 않았음을 국민에게 증명했다. 우리는 맨 얼굴로 소통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나아가 그에게 자신을 투영한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민의가 없는 거죠. 자의만 있는 거죠.”

“(국회가 지금 뭘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건물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이 했던 말을 현존하는 유력 정치인이 한다고 상상해보자. 인터넷 기사에 ‘유체이탈 뇌절’이라는 댓글부터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의 유체이탈 화법이 노회찬이 하면 국민인 내가 읊조린 말 같이 들리는 것은 그가 국민이 아닌 자신을 탓하는 이였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노회찬의 말하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청자와 화자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총서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평소 화를 거의 내지 않던 세종은 훈민정음 반포에 반대하던 정창손에 대노한다.

정창손: “지금껏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루한 짓거리를 해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천품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 “감히 어디서 과인의 백성을 능멸하느냐, 백성의 천품이 교화될 수 없다면 네 놈이 정치는 왜 해”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바 있는 이 장면에서 ‘국민을 탓하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노회찬과 세종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사석에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가 언젠가 했던 말이에요.’라 하는 노회찬의 표정 역시 떠오르게 한다.

노회찬의 말하기에는 공자의 논어에서 말하는 언행일치에서부터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했던 ‘배달증명’이 있었으며, 프로타고라스의 수사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품성까지 다 있었다. 나는 이 말하기를 분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고민도 수시로 했다. 발제문을 읽는 내내, 노회찬의 어록을 찾는 내내 다시 또 감탄하며 ‘이것이 수사를 배운다고 되는 일인가’하고 정치인을 꿈꾸는 내게 되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답하셨으리라 믿으며 자신을 다시 세웠다. “내가 했던 말은 다 여러분이 했던 말이에요.”

패션
뷰티
라이프

MC장원 개그맨

패널토론

MC장원 개그맨

노회찬의 유머, 그 근간은 무엇일까?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루고 유명개그맨이 된 것 같았던 그 시절.

처음으로 자차를 마련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잘타고 다니는데, 평소 친분이 있었던 개그맨 선배 한 분이 조언을 한 마디 해주셨습니다.

“장원아, 너 개그맨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대중교통을 타라.”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어렵פות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이야 깨닫게 된 것이지만 타인의 시선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다양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개그맨들이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표정과 말, 행동 등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면 버릇처럼 사람들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짜증을 내는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멍 때릴 때 어떤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일을 즐겨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작업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고 그 선배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다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타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의 경험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럼 소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 관찰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머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의 영역’ 안에서 이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찬 유머의 근간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신체적인 능력 보다 더욱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 유머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의 노화나 그 외 자율신경계의 노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으며 다양한 분야,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몇몇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나누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몇몇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정립을 시킵니다. 심지어 이 작업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더 이상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의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포장 아래 이런 작업들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이 공감 할 수 있는 유머의 영역에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노회찬의 유머를 생각해보면, 늘 놓치지 않았던 호기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불판론’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삼겹살집에서 종업원에게 ‘불판을 갈아달라.’고 부탁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도 ‘호기심왕’ 노회찬의 눈에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여의도에서는 이런 ‘노회찬의 호기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꼰대력’ 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유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흑백의 여의도 풍경 속에서 홀로 컬러를 입고 종횡무진 하던 노회찬의 유머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과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어린 아이 같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노회찬

그런 정치인이 또다시 우리 곁에 나타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